

『金匱要略』의 婦人雜病에 관한 研究

金珠哲·尹暢烈*

關於『金匱要略』之婦人雜病的研究

金珠哲·尹暢烈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金匱要略·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主要論述了婦人疾病的經·帶以及熱入血室·梅核氣·臟躁·腹痛·轉胞·陰吹·陰瘡登雜病. 根據歷代注家們所作的注釋, 以辨證論治爲中心作了對本篇的研究結果, 獲得了以下的結論.

1. 婦人雜病以經·帶爲主, 其主要病因可歸納爲虛·冷·結氣等三個方面.
2. 婦人雜病屬於胎產以外的疾患, 其中經帶異常是最常見的疾患. 但胎產可引起雜病, 雜病亦對胎產每加影響, 因此兩者成爲婦人病中最重要的部分.
3. 熱入血室由外感發熱引起, 與月經疾患關係密切, 其辨證要點是熱與血相搏結與否, 治療以泄熱爲主, 可選用內服小柴胡湯, 或外用鍼刺期門穴.
4. 經帶病方面的疾患經水不調, 經閉, 漏下和帶下病等等, 本篇提示了其症狀, 發病原因以及針對原因的治法和治療處方.
5. 本篇所論的腹痛是發生於每次月經前後的婦科常見病症, 治療上因挾風邪而瘀血內阻所致的, 宜用紅薑花酒活血止痛; 因血行不暢且挾水濕所致的, 宜用當歸芍藥散通調氣血·祛除水濕; 因中氣虛寒所致的, 宜用小建中湯溫中補虛.
6. 梅核氣, 臟躁等疾病均與情志刺戟有關, 並非是女子所特有的疾患. 前者因痰氣鬱結所致, 治用半夏厚朴湯化痰理氣; 後者因氣鬱化火而臟陰不足所致, 治用甘麥大棗湯滋養心脾·潤燥緩急.
7. 轉胞者, 宜用腎氣丸; 陰吹者, 宜用膏發煎. 對此可結合後世的有關敘述, 可以整體理解.
8. 『金匱要略』中論述了許多雜病, 其中婦科方面提示了病因·病機·症狀以及治方, 在此所論述的內容或處方, 至今還在臨床上有效地使用.

I. 緒 論

『金匱要略』은 後漢의 張仲景이 撰한 『傷寒雜病論』의 雜病部分이다. 『傷寒雜病論』은 “傷寒”과 “雜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두 16券으로 되어있

다. 그 중 10券은 傷寒이며, 6券은 雜病인데 『金匱要略』은 그 중 雜病部分이다.

『金匱要略』에는 『婦人妊娠病脈證并治第二十』, 『婦人產後病脈證并治第二十一』,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 등의 3편이 있어 婦人科 疾患에 대한 설명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¹⁾ 이는 婦人科學의 가장 基本的인 내용로 後代에도 많은 영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렬 · E-mail : yooney@dju.ac.kr
· 채택일 : 2004년 7월 26일.

1) 한의부인과학 편찬위원회 著, 한의부인과학(上), 서울, 도서출판 경담, 2001, p3.

향을 주었다. 『金匱要略·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는 胎, 産 이외의 胞宮과 前陰病과 情志病에 관한 것을 담고 있는데 月經病과 帶下에 관해 重點的으로 敍述하고 있으며, 熱入血室·梅核氣·臟躁·腹痛·轉胞·陰吹·陰瘡에 대해 敍述하고 있다.²⁾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에서는 虛·冷·結氣를 婦人雜病의 3가지 主要原因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胎産과 다른 雜病에 영향을 미치는 經帶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敍述하고 있다.³⁾ 또, 熱入血室·梅核氣·臟躁·腹痛·轉胞·陰吹·陰瘡등의 諸疾에 대해서도 敍述하고 있다.

그러나 本篇에는 문맥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나 原文에서 가리키는 바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著者는 張仲景의 『金匱要略·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에 나타난 婦人雜病의 症狀·病因·分類·病機·治法·方藥·豫後 등에 대하여 각 醫家의 註釋을 參照하여 함께 考察함으로써 婦人雜病에 대한 基礎資料로 삼고자 研究하여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본 論文은 『金匱要略』의 原文 順序에 따라 篇을 나누었으며, 校勘·字句解·考察의 順序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은 大星文化社에서 1984年度에 影印出版한 『仲景全書』를 底本으로 하였다.

나. 校勘과 字句解는 郭霽春과 王玉興이 編著한 『金匱要略校註語譯』(中國中醫藥出版社 1999)을 주로 參考로 하였다.

다. 字句解는 本文을 理解하는데 꼭 必要한 경우에 限하여 簡略하게 說明하였다.

라. 考察은 陳紀藩이 主編한 『金匱要略』(人民衛生出版社, 2002.)을 위주로 參考로 하였다.

마. 本文에 記載된 原文은 條文이라고 名稱하였

2) 李克光 著,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596.
3) 金楨汎 編著, 金匱要略辨釋(下), 서울, 韓醫文化社, 2002, p.580.

다.

바. 본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에는 『』로, 脚注에는 1), 2), 3)으로, 校勘에는 ①, ②, ③으로, 字句解에는 [] 등의 一連番號로 標示하였다.

III. 研究內容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

【原文 1】

婦人中風七八日¹⁾에 統來寒熱²⁾하고 發作有時³⁾하고 經水適斷⁴⁾者는 此爲熱入血室⁵⁾이니 其血必結⁶⁾이라 故使如瘧狀⁷⁾하고 發作有時이니 小柴胡湯主之⁸⁾

【校勘】

- ① 續來寒熱: 『傷寒論』144條에는 “來”가 “得”으로 되어 있다. 『脈經』卷九第六에는 “來”가 “有”로 되어 있다. 살펴보면 “來”는 말의 助詞로 뜻이 없다. “續寒熱”은 連續寒熱이라는 말과 같다.
- ② 經水適斷: 張志聰은 “經水適斷” 네 字는 마땅히 ‘七八日’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說明이 취할 만 하다. 程林은 “婦人經行之際, 當血弱氣盡之時, 邪氣因入血室, 與精氣相搏, 則經爲之斷, 血爲之結也, 血結則邪正分爭, 休作有時.”라고 했다.
- ③ 其血必結: 張壽頤은 “其血必結四字, 必是錯簡, 血已瘀結, 而更可授以柴之升提, 蔘草棗之補乎? 仲景安有此理? 然古今注者, 竟謂小柴胡一方, 爲通治熱入血室之妙藥, 豈非大誤?”라고 했다. (『婦科輯要箋正』)

【字句解】

- (1) 發作有時: 唐宗海는 “人之衛氣, 晝行于陽二十五度, 夜行于陰二十五度. 瘧疾伏于膜原之中, 衛氣會之, 阻不得行, 則相爭爲寒熱. 今婦人熱入血室, 其血必聚結不得散, 阻其衛氣. 遇衛氣行到其間, 阻而不達, 遂亦相爭, 發爲寒熱, 有如瘧狀, 發作有時, 視衛氣所遇之時而發也.”라고 했다.
- (2) 此爲熱入血室: 山田正珍은 “血室, 謂胞, 卽子宮也.”

라고 했다. 張介賓은 “醫家以衝任之脈盛于此(子宮을 가리킨다.), 則月事以時下, 故名之曰血室.”이라고 했다. 吳又可는 “經水適斷, 血室空虛, 其邪乘勢傳入, 邪勝正虧, 經氣不振, 不能鼓散其邪, 爲難治. 此不從血泄, 邪氣何由即解? 與適斷者, 有血虛血室之分.”(『溫疫論』卷下)라고 했다.

- (3) 小柴胡湯主之: 尤怡는 “仲景單用小柴胡湯, 不雜血藥一味, 意謂熱邪解而作結之血自行耳.”라고 했다. 曹家達은 “熱邪甫陷, 胞中定無乾血, 故但需小柴胡湯, 使標陽之陷而入者, 升發而出入, 其病當愈.”라고 했다. 劉完素는 “先服小柴胡以去其寒熱, 後以四物湯調之.”(『河間六書』)라고 했다.

【考察】

본 條文은 經水適斷한 熱入血室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女가 外感中風을 앓은 지 七八日이 되었을 때, 만약 一般 外感病의 發病規律을 따른다면 이때 表邪는 대부분 除去되고 寒熱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本證에서는 다시 寒熱이 보이고 發作有時하는 것이 瘧疾의 모양과 같고, 동시에 生理時期를 맞아 나오던 經水가 갑자기 중단된다. 이것은 婦女의 生理時期에 血室이 空虛해져서 外邪가 虛를 타고 侵入해서 化熱하기 容易하고 血과 서로 搏結하므로 “熱入血室”이라 부른다. 확실히 本證은 “續來寒熱”하지만 外感中風의 寒熱과는 다르다. 血室에 침입한 邪氣와 血이 서로 搏結해서 衛氣의 暢行에 영향을 미쳐 매번 衛氣가 그 사이를 지날 때마다 더욱 阻塞되고 不達해 衛氣가 그것과 서로 싸우므로 寒熱이 정해진 시간에 發作하는 特點이 나타난다. 小柴胡湯을 사용해 扶正達邪·和利氣機하면, 正氣는 점차 회복되고 血室의 邪氣는 清泄되어 氣血이 暢行하여 모든 症狀이 없어진다.

本條의 病因病機에 대해서 注家들은 대부분 表邪가 虛를 틈타 血室로 들어가 血과 相搏해서 血結不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단 寒熱發作有時가 만들어지는 病理에는 여러 다른 解釋이 있다. 趙以德·李彥은 血氣와 邪氣의 分爭으로 解釋하고, 徐忠可是 血室과 肝膽의 관계로 解釋했고, 尤在涇은 邪溜血室과 經絡에 侵淫한 것으로 解釋했

고, 高學山·唐容川·黃樹曾은 邪結血室해서 衛氣의 運行이 그 사이에 阻塞되어 邪氣와 相爭한 것으로 解釋했다. 모든 說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闡發했는데 각기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인 病機와 治法方藥을 結合해보면 高氏·唐氏·黃氏의 見解가 더 적절해 보인다. 이외에 本證에 血結이 있지만 化癆行血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小柴胡湯을 사용해서 治療한 이유에 대해 注家들은 각자의 觀點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이것이 血結의 原因을 除去하는 것이라 했는데, 尤在涇은 “熱邪解而作結之血自行耳”라고 했다. 어떤 이는 이것은 氣行血行의 의미를 취한 것이라 했는데, 徐忠可是 “上焦氣和, 而驟結之血將自行”이라 했고, 高學山은 小柴胡湯을 사용한 뜻이 和解에 있으니 熱이 血에 結한 것이 甚하면 丹皮·丹參을 加해 泄熱行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고, 黃元御 역시 小柴胡湯을 사용해 少陽經의 邪熱을 發하는데 만약 下利하지 않으면 下癆血劑를 사용한다고 했다. 실제로 모든 說들이 모순되지는 않으나, 血이 처음 結하고 가벼울 때에는 血結의 原因을 除去하고 氣가 行하여서 血이 스스로 行하기를 기다린다. 만약 血結이 오래되고 重하면 高·黃의 見解를 參考할 만하다.

【原文 2】

婦人傷寒¹⁾發熱²⁾經水適來³⁾하고 晝日¹⁾明了²⁾하여 暮則譫語³⁾하여 如見鬼狀者⁴⁾는 此爲熱入血室⁵⁾이니 無犯胃氣及上二焦⁶⁾면 必自愈²⁾라

【校勘】

- ① 晝日: 『溫疫論』卷下와 『婦人大全良方』卷六은 “晝則”으로 바꾸어, 아래의 “暮則”과 相應되게 했다.
- ② 明了: 『脈經』卷九第六에서는 “了了”로 되어있다.
- ③ 暮則譫語: 『傷寒九十論』第十七에는 “暮”가 “夜”로 되어있다. 살펴보면, 熱入血室證은 病이 血에 있지 氣에 있지 않다. 氣는 陽에 屬하므로 낮에는 了了하다. 血은 陰에 屬하므로 낮에는 譫語한다. 吳又可는 “蓋衛氣晝行于陽, 不與陰爭, 故晝則明了. 夜行于陰, 與邪相爭, 故夜則發熱譫語. 至夜但發熱而不譫語者, 亦爲熱入血室, 因有輕重之分, 不必拘于譫語也.”라고 했다.

- ④ 者: 『脈經』에는 이 글자가 없다.
- ⑤ 無犯胃氣及上二焦: 『脈經』에서 “及”은 “若”으로 되었다. “若”은 선택 접속사로서 “或”의 뜻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하다. 여기서 重無犯胃氣라는 것은 下法을 禁한다는 것이다. 方有執은 “無犯胃氣, 以禁下言, 上二焦以禁汗吐言.”라고 말했다.

【字句解】

- (1) 婦人傷寒: 柯琴은 “前條言中風, 此言傷寒, 見婦人傷寒中風, 皆有熱入血室證也.”라고 했다.
- (2) 必自愈: 犯해서는 안되는 禁忌에 따라 어떤 經의 行血이 흐르면, 邪熱이 血을 따라 모두 除去되고 病(謔語등을 가리킨다) 역시 점차 없어지면서 낫는다.

【考察】

본 條文은 經水適來한 熱入血室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女가 外感發熱할 때 生理가 시작되어 血室이 空虛해지는 時期가 되면, 外邪가 化熱해서 胞宮에 侵入한다. 血은 陰에 屬하고 夜暮 역시 陰에 屬하며, 氣는 陽에 屬하고 晝日 역시 陽에 屬한다. 지금 熱이 胞宮血室에 侵入해 內部에서 血分을 動搖시키므로 낮에는 神志가 맑고 黃昏 이후에는 神識이 不清하고 胡言亂語하고 망령되어 보이는 것이 있다. 이것은 “熱入血室”證이지 熱結陽明나 痰蒙心竅도 아니고 表邪가 풀리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上焦의 氣를 動搖하거나 或은 胃氣를 損傷하는 것을 免하기위해 攻下 或涌吐 或發汗등의 여러 治法을 사용할 수 없고 마땅히 下焦血室을 治療해야한다.

歷代 注家들의 本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대부분 本證에 어떠한 治療를 해야 하는가에 集中되어 있다. 한 觀點은 “必自愈”에 착안해 熱이 血을 따라 除去되므로 藥을 사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낫는다고 보았다. 趙以德·程云來·李杲·吳謙·朱光被 등이 모두 이 見解를 지지했다. 다른 觀點은 “治之” 두 字에 착안해, 治療해야 낫는다고 인식했다. 그 중에 喻嘉言·唐容川·黃樹曾 등은 小柴胡湯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고, 黃竹齋는 小柴胡湯加生薑地黃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고, 徐忠可是 表邪를 和解하는

중에 血室의 熱을 淸하는 것을 약간 兼해야 한다고 했고, 曹穎甫는 功瘀를 주장하면서 “桃核承氣湯, 抵當湯丸·下瘀血湯 皆足以治之”라 했다. 두 가지 說은 각기 根據하는 바가 있으나 原文 맨 끝의 두 句節로 볼 때 그 方法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本證의 治療禁忌를 말하고 胃氣를 損傷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의 說은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고, 뒤의 說은 原文에 대한 發揮로 볼 수 있다. 이외에 “無犯胃氣及上二焦”에 대해 注家들은 서로 다른 見解를 가졌는데, 趙以德·李杲은 小柴胡湯을 사용해 發汗하는 것을 禁해 上焦를 犯하는 것을 막고, 期門에 刺鍼하는 것을 막아 中焦를 犯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 했고; 尤在涇은 攻下와 汗法을 禁하는 것이라 했고; 曹穎甫는 承氣湯을 사용해 攻下하는 것과 太陽經의 汗을 發하는 것을 禁하는 것이라 했고; 程林·吳謙·朱光被 등은 汗·吐·下法을 禁하는 것이라 했다. 모든 說들이 각기 일리가 있지만, 臨床實際와 結合해서 볼 때 程·吳·朱 等 諸家의 觀點이 가리키는 意義가 더 큰 것 같다.

本證과 上證은 모두 熱入血室에 屬하고, 모두 經水와 有關하다. 아래에 表로 비교한다.

病證	成因	主症	治法	方藥
經水適斷 熱入血室證	外邪化熱, 乘虛侵入 血室, 熱與血結	寒熱發作有時, 如癰狀, 經水適斷	扶正達 邪和利 氣機	小柴胡湯
經水適來 熱入血室證	外邪化熱, 乘虛侵入 血室, 熱搖血分	發熱, 經水適來, 晝日明了, 暮則謔語, 如見鬼狀	禁用汗· 吐·下法	可選用小 柴胡湯, 酌情化裁

【原文 3】

婦人中風¹이 發熱惡寒²하고 經水適來¹¹가 得之¹²七八日¹³에 熱除而脈遲身涼²이고 胸脇下滿³이⁴如結胸狀²¹하고 謔語者⁴는 此爲

熱入血室也¹ 當刺期門² 隨其寒³ 而取之⁴

【校勘】

- ① 得: 『傷寒論』143條와 『脈經』卷九第六에는 “得” 아래에 “之”字가 있는데, 이를 따라 보충한다.
- ② 身冷和: 『傷寒論』과 『脈經』에는 모두 “和”字가 없다. 成無已는 “發熱, 脈遲, 身涼, 邪氣內陷, 表邪罷也.”라고 말했다.
- ③ 胸脇滿: 『傷寒論』과 『脈經』에 모두 “胸脇下滿”으로 되어있다.
- ④ 譫語者: 『脈經』에는 “其人譫語”로 되어있다. 살펴보면 譫語가 발생하는 것은 肝의 藏血하는 곳인 血室에 熱邪가 侵入해 經絡을 따라 올라가 神明을 動搖시키면 譫語가 발생하는 것이다.
- ⑤ 實: 『脈經』에서는 “虛實” 두 글자로 되어있다.

【字句解】

- (1) 經水適來: 成無已는 “中風, 發熱惡寒, 表證也. 若經水不來, 表邪傳裏, 則入府而不入血室也; 因經水適來, 血室空虛, 至七八日邪氣傳裏之時, 更不入府, 乘虛而入于血室.”이라 했다.
- (2) 如結胸狀: 唐宗海는 “如結胸狀, 而非眞結胸, 其辨在‘熱除, 脈遲, 身涼’, 如眞結胸不同也.”라 했다. 살펴보면 眞結胸은 寸脈浮하고 關脈沈하며 出現하는 症狀는 누르면 돌처럼 딱딱하고 心下痛하고 膈內拒痛데 여기서는 “胸脇滿”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래서 “如”라 말한 것이다.
- (3) 當刺期門: 期門은 穴名인데 乳頭 直下 제 6肋間隙에 위치해있고 肝의 募穴이다. 期門에 刺鍼해 肝을 瀉하면 胸脇의 邪氣와 血室의 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吳又可는 “若有如結胸狀者, 血因邪結也, 當刺期門, 以通其結, 以柴胡湯治之, 不若刺者功捷.”(『溫疫論』卷下)라 했다. 陳自明은 “若脈遲身涼, 當刺期門穴, 下鍼病人五吸, 停鍼良久, 徐徐出鍼, 凡鍼期門穴, 必瀉勿補, 肥人二寸, 瘦人寸半也.”(『婦人大全良方』卷六)이라 했다.

【考察】

본 條文은 熱入血室한 瘀熱搖肝經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人이 밖으로 風邪에 感하면 惡寒發

熱이 나타나는데, 이때 經水가 시작하면 表邪가 더욱 化熱하고 胞宮의 虛를 타고 內部로 들어가서 七八日이 되면 外熱이 없어지고 몸 역시 涼和해지고 脈도 느린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邪氣가 이미 表를 떠나 血室로 들어가 內部에 瘀熱이 있는 證이다. 肝은 藏血을 主하고 또 血室은 肝이 主하는 곳이고 肝脈이 胸脇에 分布하는데, 지금 血室內에 瘀熱이 있고 肝經을 따라 上搖하므로 結胸처럼 胸脇脹滿한다. 血分의 瘀熱이 內部에서 神明을 動搖시키면 譫語한다. 종합하면, 本證은 熱入血室로 瘀熱이 內部에서 肝經을 動搖시킨 證이다. 그러므로 肝의 募穴인 期門을 刺鍼해서 肝經에 侵搖한 瘀熱實邪를 瀉한다.

本條의 病機에 대한 注家들의 見解는 대체로 같은데, 단 “脈遲”의 解釋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 多數의 注家들은 이것과 “熱除”, “身涼和”로 表證이 이미 罷하고 邪氣가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 梁運通은 『金匱釋按』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解釋하고 있는데, “言脈遲是脈靜而不浮者”라고 했다. 단 南京中醫學院 傷寒教研組 主編의 『傷寒論譯釋』은 “本條脈遲, 爲去來鬱滯之意”라고 했다. 李克光 主編의 『金匱要略譯釋』 역시 “瘀熱阻滯脈行不利脈遲”라고 확실히 말했다. 두 說은 각기 일정한 論理가 있고, 착안점 또한 같지 않다. 本證의 病機를 結合해보면 뒤의 說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 외에 期門에 刺鍼하는 목적에 대해서 注家들은 대부분 血分의 實熱을 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本證이 瘀熱이 內部에서 肝經을 動搖시킨 것이므로 募穴에 刺鍼해서 實熱을 瀉할 뿐만 아니라 經絡을 소통시켜 실제로 그 瘀熱을 除去한다.

【原文 4】

陽明病¹ 下血² 譫語者³는 此爲熱入血室¹이되 但頭汗出¹者는 刺期門¹이 隨其寒²而瀉之³ 瀉然² 汗出則愈³

【校勘】

- ① 下血: 『脈經』卷九第六에는 “血”字 아래에 “而”字가 있다.
- ② 譫語者: “讞”은 『脈經』에 “譫”으로 되어있고, “語”字

아래에 “者”字가 없다. 李注本·尤注本에서 “讞”은 모두 “譫”으로 되어있다. 살펴보면 “讞”과 “譫”은 음은 같지만 뜻은 같지 않다. 『集韻·二十四鹽』에는 “讞, 疾而寐語也.”, “譫, 多言”이라 했다. 사전에서는 두 글자가 같지만, 맞지 않은 듯 하다. 이것은 “譫”으로 하는 것이 옳다. 『素問·熱論』王注에서 “譫言, 謂妄謬而不次也.”라 했다. 尤怡는 “陽明之熱, 從氣而之血, 襲之胞宮, 卽下血而譫語. 蓋衝任之脈, 并陽明之經, 不必乘經水之來, 而後得入之, 故彼爲血去而熱入, 此爲熱入而血下也.”라 했다.

- ③ 汗出者愈: 『脈經』에는 “者”아래에 “則”字가 있다. 李注本에는 “者”가 “則”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옳다. “者”에 “則”의 뜻이 있으므로 중복할 필요가 없다.

【字句解】

- (1) 但頭汗出: “但”은 태도를 표명하는 동사이고, “또”의 뜻도 있다. 尤怡는 “頭汗出者, 陽通而閉在陰也.”라고 말했다. 唐宗海는 “血室中, 衝任脈皆上行, 肝脈亦上頭, 熱氣上衝, 則頭汗出.”
 (2) 澀然: “澀然”은 안하고舒暢한 모습이다. 『說文·水部』과 『廣韻·二十六緝』모두 “澀, 和也.”라 했다.

【考察】

본 條文은 陽明病 熱入血室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人이 陽明病을 앓을 때 經期가 아닌데도 前陰下血·譫語·但頭汗出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은 陽明氣分의 熱盛으로 經絡을 따라 內迫해 血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衝脈이 胞中에서 시작해 陽明胃經과 氣街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금 陽明邪熱이 衝脈을 따라 內部로 胞宮으로 들어가 迫血下行하기 때문에 前陰下血이 생긴다. 血室의 熱이 위로 神明을 動搖시키면 譫語하고; 衝脈을 따라 上逆해 津液을 逼迫해 外出하므로 但頭汗出한다. 이 證이 陽明病에서 시작했지만 發展해서 熱入血室證이 되는 것은 氣分의 熱이 血分의 熱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治療는 肝의 募穴인 期門을 刺鍼해서 血分의 實熱을 泄하고, 血中の 實熱이 온몸에서 땀으로 外泄되기를 기다리면 그 病은 나올

수 있다.

本條에 대한 注家들의 見解는 대체로 같은데, “但頭汗出”의 病理機轉에 대해서는 약간의 差異가 있다. 예를 들어 趙以德은 “奪血者無汗”으로 解釋했고, 徐忠可是 血熱陰虛로 解釋했고, 李紘은 邪氣가 內結해 머리를 薰蒸한 것으로 解釋했고, 尤在涇은 血分閉鬱로 解釋했으며, 朱光被는 血熱이 清陽을 下迫한 것으로 解釋했고, 黃樹曾은 血室의 熱이 衝·任·肝脈을 따라 上衝한 것으로 解釋했다. 여러 說들이 사람에 따라 보는 각도가 다르지만, 本證의 모든 病機와 治法을 結合해보면 黃樹曾의 說이 더욱 구체적이고 明瞭해 보인다.

【原文 5】

婦人咽中如有炙𩚑^①하면 半夏厚朴湯主之^②

【校勘】

- ① 炙𩚑: 『脈經』卷九第六에는 “𩚑”이 “腐狀”으로 되어 있다. 𩚑은 切碎한 작은 고깃덩이이다. 『廣韻·二十八隔』에서 “𩚑, 肉𩚑”이라 했다. 黃樹曾은 “咽中痰氣阻塞, 宛似有肉貼于口中之旁, 吐之不出, 吞之不下, 俗謂之梅核氣”라 했다.

【字句解】

- (1) 半夏厚朴湯主之: 吳謙은 “此病得于七情鬱結, 凝涎而生, 故用半夏·厚朴·生薑, 辛以散結, 苦以降逆, 茯苓左半夏, 以利飲行涎, 紫荔芳香, 以宣通鬱氣, 俾氣舒涎去, 病自愈矣. 此證男子亦有, 不獨婦人也.”라 했다.

【考察】

本 條文은 氣滯痰結로 咽中에 炙𩚑이 있는 듯한 症狀의 治療를 論하고 있다. 婦人이 咽中에 燒肉 덩어리 같은 것이 막힌 것을 自覺하는데,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내려가지 않는다. 단 飲食을 삼킬 때는 妨碍가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七情의 失調과 관계있다. 情志의 抑鬱이 퍼지지 않아 肝이 條達機能을 잃고, 氣機가 鬱結되면 곧 津液의 運행이 不暢해지고 津液이 모여서 痰을 이루는데 氣滯로 인한 痰凝은 咽喉로 上逆해 이러한 病을

일으킨다. 後世에는 이것을 또 梅核氣라고 부른다. 治療는 理氣降逆·化痰散結 해야 하며, 處方은 半夏厚朴湯을 사용한다.

方中の 半夏·厚朴은 모두 化痰開結 下氣降逆할 수 있으므로 主藥으로 사용했다. 보조적으로는 茯苓으로 滲利하고 祛痰하며, 生薑의 降逆氣하는 성질로 痰結을 散했다. 또 방향성이 있고 가벼워 날리는 乾蘇葉을 이용해 理氣解鬱했다. 모든 藥을 같이 사용해 氣鬱이 풀리도록 하고 痰凝이 열리게 하면 咽中이 舒暢된다. 본 處方은 “日三夜一服” 방식의 연속적인 服用法을 採用했는데, 이는 藥力을 持續시켜 痰氣가 다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原文 6】

婦人臆躁¹⁾에 喜悲傷欲哭²⁾이아 象如神靈所作³⁾이고 數欠伸⁴⁾이던 甘麥大棗湯⁵⁾主之라

【校勘】

- ① 臆躁: 『脈經』卷九第六에는 “臆燥”로 되어있고, 徐注本·尤注本 그리고 『本草綱目』卷二十九에서는 “棗”條를 같이 인용했는데 모두 잘못되었다. 吳謙은 “臆, 心臆也, 心靜則神藏, 若爲七情所傷, 則心不得靜而神躁搖不守也.”라 했다.

【字句解】

- (1) 喜悲傷, 欲哭: 孫思邈은 “心氣虛則悲不已.”라고 말했다. 吳謙은 “喜悲傷欲哭, 是神不能主情也.”라 했다.
- (2) 象如神靈所作: 心臟은 神은 藏하고 血을 主하는데, 心血虛하면 神亂하고 神靈이 뭔가에 依支된 것 같아진다.
- (3) 數欠伸: 黃元御은 “欠者, 開口而呵氣; 伸者, 張臂而舒筋.”이라 했다.
- (4) 甘麥大棗湯: 程林은 “『內經』曰: ‘悲則心悸急, 甘麥大棗者, 甘以緩諸急也. 『靈樞經』曰: ‘心病者, 宜食麥. 是穀先入心矣.’”라 했다. 丹波元簡은 “『素問』以小麥爲心之穀. 『千金』云: ‘小麥養心氣. 本方所主, 正在于此. 驗之于病者, 始知此方之妙也.”라 했다.

【考察】

本 條文은 臆躁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人이 情志不舒로 肝鬱化火해서 陰을 傷하고 津液을 耗損하거나 혹은 思慮過多로 營血을 耗損하고 心脾들 다 傷해서 臟陰의 不足으로 心神이 失養되어 躁搖不寧하면 곧 臆躁症을 發生할 수 있다. 즉 항상 이유 없이 슬퍼 울려고 하고, 情緒의 變化가 無常하고, 빈번히 하품을 하고, 기지개로 허리를 피는 것 등이다. 治療는 補益心脾·緩急安神之 治法을 사용하고, 處方은 甘麥大棗湯을 사용한다.

原文의 “臆躁”中の “臆”의 所在에 대해 注家들마다 각기 가리키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徐忠可·黃樹曾은 “五臟”을 가리켰고, 趙以德은 肝脾를 가리켰고, 沈明宗·尤在涇등은 子宮을 가리켰고, 李紘·曹穎甫는 肺를 가리켰고, 吳謙은 心을 가리켰고, 高學山은 心肺를 가리켰다. 모든 說이 각기 根據하는 바가 있고, 착안점도 다르다. 만약 臆躁의 證候로 분석하면 徐忠可·黃樹曾의 見解가 비교적 전면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本方의 功能으로 보면 心脾를 補益하는 것이 위주이고, 本證의 成因을 연구하면 대부분 七情失調와 關聯이 있다. 위의 說들을 종합해보면 本證의 病位는 주로 心肝脾에 있고 아울러 肺腎과도 연계된다. 이것 외에 “喜悲傷欲哭”의 “喜”字에 대해서 多數의 注家들은 모두 “經常”이나 혹은 “容易”로 해석하는데, 오직 王延富는 『金匱要略指難』中에서 “喜應作喜笑之喜, 作笑字理解.”라 했다. 『金匱』에서 “喜”字의 사용습관으로 볼 때, 앞의 설명이 비교적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臨床實踐으로 보면 本方이 확실히 “悲傷欲哭, 喜笑無常”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뒤의 설명은 『金匱』原文에 대한 發揮로 볼 수 있다. “象如神靈所作”이라는 한 症狀에 대해서 어떤 이는 “好象有鬼 怪神靈依附在身上一樣”이라 해석하고, 어떤 이는 “精神失常”으로 해석하고, 어떤 이는 “不能自主”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모두 다른 각도에서 本證이 精神情緒變化가 無常하다는 特點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百合病의 “如有神靈者”와 아주 비슷하므로 아래에 表로 비교했다.

病症	成因	主證	治法	方藥
百合病	熱病之後， 餘熱傷陰， 或情志不遂， 鬱熱傷陰， 至心肺陰虛內熱	意欲食復不能食， 常默默， 欲臥不能臥， 欲行不能行， 如寒無寒， 如熱無熱， 如有神靈者， 身形如和，口苦， 小便赤，脈微數	潤養 心肺， 益陰 清熱	百合地黃 湯 (百合七個， 生地黃汁 一升)
臟躁	情志不遂， 肝鬱化火， 傷陰耗津， 或思慮過度， 勞傷心脾， 暗耗營血， 以致臟陰不足， 心神失養， 躁搖不寧	喜悲傷欲哭， 象如神靈所作， 數欠伸	補益 心脾， 緩急 安神	甘麥大棗 湯 (甘草三兩， 小麥一升， 大棗七個)

方中에서 小麥을 사용하여 養心健脾益肝하고 兼하여 安神寧志할 수 있으며, 甘草·大棗는 味甘하고 健脾補土하고 兼하여 緩急止躁할 수 있다. 세 藥을 配合하면 補益心脾, 緩急安神의 功을 함께 볼 수 있다.

【原文 7】

婦人^①吐涎沫^②或^③醫反下之^④心下即痞^⑤當先治其吐涎沫^⑥或^⑦小青龍湯主之^⑧涎沫止^⑨乃治痞^⑩瀉心湯主之^⑪라

【校勘】

- ① 婦人: 『千金』卷二十九第六에는 “婦人”아래에 “霍亂嘔逆”의 네 字가 있다.
- ② 即痞: 『二注』에는 “痞滿”으로 되어있다.
- ③ 乃治痞: 『千金』에는 “次治其痞”의 네 字로 되어있다.
- ④ 瀉心湯主之: 『千金』에는 “可服甘草瀉心湯方”으로 되어있다.

【字句解】

- (1) 吐涎沫, 醫反下之: 尤怡는 “吐涎沫, 上焦有寒也, 不如溫散, 而反下之, 則寒內入而成痞, 如傷寒下早例也.”라 했다.
- (2) 當先治其吐涎沫: 尤怡는 “雖成痞, 而猶吐涎沫, 則上焦未已, 不可治痞, 當先治其傷寒, 而後治其中痞.”라 했다.

【考察】

본 條文은 寒飲을 誤下해서 생긴 痞證의 先後治法을 論하고 있다. “吐涎沫”은 內部에 寒飲이 있는 證이고, 세밀하게 辨別하면 飲이 上焦에 있는지 中焦에 있는지의 區分이 있는데, 婦人뿐만 아니라 男子도 飲이 上焦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中焦에 있는 경우 모두 溫化의 治法이 適當하다. 만약 飲邪가 實을 만든 게 아니어서 攻下法이 절대로 適當한 것이 아닌데, 만약 醫師가 辨證을 잘못해서 攻下法을 妄用되어 사용하면 寒飲이 제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脾胃를 傷할 것이다. 寒飲이 虛를 틈타 心下에 結聚하므로 “心下即痞”가 된다. 本證은 처음에는 寒飲 때문에 吐涎沫하지만, 마지막에는 寒飲 때문에 心下痞가 되므로 마땅히 吐涎沫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이것은 실제로 病의 根本을 治療하라는 뜻으로, 寒飲이 肺에 있어서 吐涎沫하므로 小青龍湯을 써서 溫肺化飲한다. 寒飲이 化하기를 기다려 吐涎沫이 그친 후에 다시 心下痞의 證과 情況을 따라 瀉心湯을 사용해 痞證을 治療한다. 本條에 대한 注家들의 차이는 주로 瀉心湯이 도대체 무슨 處方이냐는 것이다. 徐忠可·曹穎甫는 大黃黃連瀉心湯으로 인식했고, 黃元御·吳謙·高學山등은 半夏瀉心湯으로 인식했으며, 丹波元簡은 『千金』에 근거해 甘草瀉心湯으로 인식했으며, 魏念庭은 『傷寒論』中的 瀉心湯方이 하나가 아니니 痞證의 여러 條文을 함께 참고하고 情況을 참작해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諸家의 觀點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解釋이 생겼다. 단 『金匱』의 辨證施治의 原則에 근거해보면, 魏氏의 見解가 비교적 객관적이고 타당해 보인다.

【原文 8】

婦人之病⁽¹⁾은 因虛 積冷 結氣⁽²⁾ 이니 爲諸經水斷絕⁽³⁾ 하니 至有歷年 이니 血寒積結⁽⁴⁾ 胞門⁽⁵⁾ 寒傷⁽⁶⁾ 하니 經絡凝澀⁽⁷⁾ 이면 在上嘔吐涎唾⁽⁸⁾ 하고 久成肺癰⁽⁹⁾ 이니 形體損分⁽¹⁰⁾ 이고 在中盤結⁽¹¹⁾ 하고 繞臍寒疝⁽¹²⁾ 하고 或 兩脇疼痛⁽¹³⁾ 이니 與臟相連⁽¹⁴⁾ 하고 或結熱中⁽¹⁵⁾ 이니 痛⁽¹⁶⁾ 在關元⁽¹⁷⁾ 하고 脈數 無瘡⁽¹⁸⁾ 하니 飢若魚鱗⁽¹⁹⁾ 이니 是著男子⁽²⁰⁾ 오 非止女身⁽²¹⁾ 이니 在下未多⁽²²⁾ 이니 經候不均⁽²³⁾ 이니 令陰掣痛⁽²⁴⁾ 하고 少腹惡寒⁽²⁵⁾ 하고 或引腰脊⁽²⁶⁾ 이니 下根 氣街⁽²⁷⁾ 하고 氣衝急痛⁽²⁸⁾ 하고 膝脛疼痛⁽²⁹⁾ 하고 奄忽⁽³⁰⁾ 眩冒⁽³¹⁾ 이니 狀如厥癰⁽³²⁾ 하고 或有憂慘⁽³³⁾ 이니 悲傷多嘆⁽³⁴⁾ 이니 此皆帶下⁽³⁵⁾ 라 非有鬼神⁽³⁶⁾ 이니 久 則羸瘦⁽³⁷⁾ 하고 脈虛多寒⁽³⁸⁾ 이니 三十六病⁽³⁹⁾ 이 千變萬端⁽⁴⁰⁾ 이니 審脈陰陽 虛實緊弦⁽⁴¹⁾ 이니 行其鍼葉⁽⁴²⁾ 治危得安⁽⁴³⁾ 하니 其雖同病⁽⁴⁴⁾ 이고 脈各異 源⁽⁴⁵⁾ 이니 子當辨⁽⁴⁶⁾ 記⁽⁴⁷⁾ 니 勿謂不然⁽⁴⁸⁾ 이니

【校勘】

- ① 肺癰: 丹波元堅은 “上焦寒凝, 無以肺癰之理. ‘癰’ 當作 ‘痿’, 肺冷爲痿, 甘草乾薑湯是也.”라 했다. 살펴보면, “痿”로 바꾸는게 옳다. 本書 『肺痿篇』에서 “口中有濁唾涎沫者, 爲肺痿之病”이라 했고 여기서는 “凝澀在上, 嘔吐涎唾”라고 했는데 그것과 정확히 부합된다.
- ② 痛: 明刊本에는 “病”字로 되어있다.
- ③ 未多: 孫世揚은 “未’ 當作 ‘沫’, 謂白物也. 凡經水不利, 必下白物.”이라 했다. 살펴보면 孫氏의 說이 옳다. 舊注는 “未”를 “來”로 하거나, 혹은 “寒”으로 고쳐서 解釋하는데 모두 따를 수 없다.
- ④ 經後不勻: “不勻”은 “不均”이다. “勻”과 “均”은 相通하고, 두 글자는 韻이 같다. 『集韻·十八淳』에서는 “均’ 或作 ‘勻’”으로 되어있다. 經候不勻은 經水不調이다. 『詩·皇皇者華』毛傳에서는 “均, 調也.”라 했다.
- ⑤ 辯: 尤注本·曹注本 모두 “辨”으로 되어있다. 살펴보면 “辯”과 “辨”은 通用될 수 있다. 『廣韻·二十八爾』에서 두 글자는 모두 “別”의 뜻이 있다고 했다. 一說에는 “辯”을 “辨”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지만 불필요해 보인다.

【字句解】

- (1) 婦人之病: 朱光被는 “此總敘婦人之雜病, 大抵皆由于帶下, 至經水斷折, 病態錯雜, 仲景受制爲決, 令人易于辨記也.”라 했다. 살펴보면 朱氏가 말한 “決”字는 실제로 四字韻文인데, 本段의 文句중

年·堅·分·疝·連·元·鱗·身·勻·寒·癰·嘔·神·端·弦·安·源·然 등의 글자가 韻이다.

- (2) 因虛·積冷·結氣: 吳謙은 “月經致病之根源, 多因虛損積冷結氣, 三者一有所感, 皆能使經水斷絕.”이라 했다. 살펴보면 致病의 시작에는 身體는 반드시 먼저 虛해지고 身體가 虛해지면 쉽게 寒化해서 積冷이 된다. 虛해지면 營衛의 運行이不利해지고, 氣血이 滯塞해서 結氣가 된다.
- (3) 爲諸經水斷絕: “爲諸”는 “爲之”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儀禮·士昏禮』鄭注에서 “諸, 之也”라 했다. 經水는 月經이다. 經이라고 말한 것은 生理가 일정한 時期에 나오기 때문이다.
- (4) 胞門: 子宮口이다.
- (5) 形體損分: 形體가 虛損해서 마른 것을 말한다.
- (6) 在中盤結: 寒邪가 中焦에 侵入해서 結聚한 것을 말한다. 黃樹曾은 “謂血氣鬱結于心脾肝之間”이라 했다.
- (7) 繞臍寒疝: 本書의 『腹滿寒疝篇』에서 말한 “寒疝遶臍痛”은 本句의 脚注로 삼을 수 있다. “繞”와 “遶” 두 字는 通用된다. 『廣韻·三十小』에서 “繞, 纏繞”, “遶, 圍繞”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遶”의 뜻이 더욱 명쾌해진 것 같다.
- (8) 或兩脇疼痛: 吳謙은 “是中焦之部, 連及肝臟故也.”라고 했다.
- (9) 或熱結中: 朱光被는 “‘或結熱中’ 六句, 是陰衰鬱久成熱, 中損榮分, 言心榮熱結, 不能下交于腎, 腎氣獨寒, 故痛在關元也.”라 했다. 關元은 腹部 正中央 線上의 배꼽아래 3寸 部位에 있다.
- (10) 脈數無瘡, 飢若魚鱗: 本書 『瘡癰篇』에서 瘡症은 脈이 浮數하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반대로 “脈數無瘡”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內部에 乾血이 있어 皮膚가 潤氣를 잃어서 肌肉이 물고기 비늘처럼 거칠어진 것이다.
- (11) 時著男子: 血枯虛燥해서 脈數하고 肌肉이 乾燥한 證을 말하는데, 男子에게서 명확히 있는 경우가 있다. 『廣韻·九御』에서 “著, 明也”라 했다.
- (12) 令陰掣痛: 經水에 病이 있으면 陰中이 당기면서 아프게 한다. 曹家達은 “厥陰之絡, 入于陰中, 血虧而絡燥, 故令陰掣痛.”이라 했다.
- (13) 少腹惡寒: 曹家達은 “腰爲水臟, 後通督脈, 水濕壅滯,

陽氣不通, 則本臟及背脊酸疼”이라 했다.

- (14) 下根氣街: 寒邪가 病이 되면 간혹 허리까지 땡기면서 아프고 다시 아래의 氣街까지 急痛한다. 『漢書·樣雄傳上』顏注에서는 “根, 猶株也”라 했는데 “株”에는 連의 뜻이 있다. 氣街는 臍下五寸의 曲骨穴 옆 二寸에 위치해 있다. “氣街”는 『衍義』에는 “氣衝”으로 되어있다.
- (15) 膝脛疼痛: 膝脛部가 아픈게 심한 것을 말한다. 『周禮·司隸』鄭注에서 “頰, 猶劇也”라 했다.
- (16) 忽然: 돌연히. 『文選·古詩十九首』善注에서는 『方言』의 “忽, 遽也.”라고 한 것을 인용했다. 銑注에서는 “忽然, 疾也”라 했다.
- (17) 多噦: “噦”은 『廣韻·十七眞』에서 “噦, 怒也. 又作‘噦’”이라 했다.
- (18) 帶下: 尤怡는 “帶下者, 帶脈之下, 古人列經脈爲病, 凡三十六種, 皆謂之帶下病, 非今人所謂赤白帶下也.”라 했다. 朱光被는 “此皆帶下, 立病之總名”이라 했다.
- (19) 三十六病: 이것은 婦女의 여러 疾病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 『千金』卷四第三에서 “三十六疾者, 十二癩·九痛·七害·五傷·三癩 是也. 其治白堊丸·白石脂丸 兩方. 又卷二第一承澤丸亦治婦人下焦三十六疾.”이라 했다.
- (20) 端: 사물의 모양. 『廣韻·二十六桓』에서 “端, 緒也.”라 했다.

【考察】

본 條文은 婦人雜病의 成因·證候 그리고 診斷治療의 要領을 총괄적으로 論하고 있다. 原文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부터 “胞門寒傷, 經絡凝堅”까지가 제 1부분인데, 婦人雜病의 成因을 총괄적으로 論하고 있다. 婦人雜病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비록 變化가 다양하지만, 그 原因은 “因虛·積冷·結氣”를 벗어나지 않는다. “虛”는 氣血의 虛少이다. 氣虛하면 血液을 資生하거나 血行을 推動하거나 血脈을 統攝할 수 없고, 血少하면 衝任이 不足하고 血海가 空虛해지므로 經行量少 月經後期 或閉經 或崩漏 등의 月經失調現象을 일으킬 수 있다. “積冷”은 寒冷이 오래 쌓인 것인데, 陽虛해서 생기는 內寒과 經期나 產褥期에 胞宮에 침입한 外寒을 包括한다. 寒凝은 쉽게 氣滯血瘀를 일

으키므로 痛經·月經後期·經閉 등의 月經失調症候를 일으킨다. “結氣”는 氣機鬱結인데 氣滯하면 血瘀가 되어 月經先後不定期, 經閉痛經 등의 月經失調의 여러 症狀들과 痞塊·疼痛·情志失調 등의 病症이 出現한다. 虛·積冷·結氣는 모두 月經失調 내지 閉經을 야기하므로 “爲諸經水斷絕”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끌면서 낮지 않으면 최후에 “經水斷絕”로 發展한다. 이외에 寒凝氣結은 필연적으로 胞宮에 영향을 미치고 衝任을 損傷시켜 經絡瘀滯의 病理變化를 야기해 곧 “經水斷絕”을 形成할 수 있다.

제 2부분은 “在上嘔吐涎唾, 久成肺癰”에서 “此皆帶下, 非有鬼神”까지 이다. 이것은 “因虛·積冷·結氣”가 上中下 三焦에 영향을 주어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복잡한 病症을 列舉하고 있다. 만약 上焦의 陽氣가 虛한 者가 積寒이 上焦를 犯해 肺에까지 傷하게되어 氣가 津液을 分布시키지 못하면 嘔吐涎唾한다. 만약 평소 肺에 熱이 쌓여 寒이 熱을 따라 변해 津液이 모여 痰이 만들어지고 痰과 熱이 結하고 氣滯血瘀하고 오랫동안 蘊蓄해서 膿을 만들면 肺癰이 되어 形體消瘦가 나타날 수 있다. 虛·冷·積氣가 中焦에 있으면 陽을 따라 熱로 변하던지, 陰을 따라 寒으로 변하는 變化가 있다. 만약 陽虛陰盛한 者가 寒冷이 中焦에 盤踞하면 곧 寒疝과 繞臍疼痛이 發生한다. 寒滯肝經으로 經脈이 失和하면 兩脇疼痛하고 배 안까지 땡긴다. 만약 陽熱이 偏盛한 者는 氣結血瘀로 化熱한 것이 배에 留着하면 臍下의 關元 근처가 疼痛한다. 심한 것은 痧熱의 阻遏로 新血이 만들어지지 않아 肌膚가 失養되어 비록 瘡癰이 없지만 脈數이 보이고 肌膚가 물고기 비늘처럼 粗糙한다. 이상의 여러 證候들은 婦人뿐만 아니라 男子에게서도 發生할 수 있다. 만약 “虛·冷·結氣”가 아래에 영향을 주면 여러 종류의 婦人雜病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肝腎의 精血이 虧虛해서 血海가 不充하면 月經量少나 月經後期 등이 나타나고, 肝鬱氣結로 衝任이 失調되면 月經先後不定期나 經量時多時少하니 이것이 바로 “在下未多, 經候不勻”의 뜻이다. 만약 元陽이 不足하고 衝任이 虛寒한데 혹 寒이 胞宮을 侵襲하면 前陰掣痛 少腹惡寒등이 出現한다. 심한

것은 臍下의 氣街穴 부위로부터 氣逆上衝해서 아프고 또 腰脊을 牽引해서 아프고 膝脛酸軟疼痛한 데 이것은 腎의 精氣가 모두 虧損해서 衝任이 虛損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七情失調로 氣機가 逆亂하면 돌연히 頭暈目眩하고 심하면 昏暈仆地 不知人事하니 厥症이나 癲癩과 같은 모습이다. 輕하면 憂愁가 그치지 않고 혹 이유 없이 슬퍼하고 시시 때때로 성을 잘 낸다. 上述한 여러 종류의 病證은 모두 “虛·冷·結氣” 때문이지, 氣逆이 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

제 3부분은 최후의 한 단락인데, 婦人雜病의 診斷과 治療의 要領을 말하고 있다. 婦人의 雜病이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虛로 인해 損傷을 입게 되고 沈寒痼冷이 되므로 이른바 “久則羸瘦, 脈虛多寒”이 된다. 婦人의 雜病은 複雜多變하기 때문에 “三十六病”이라는 稱號가 있다. 病을 診察할 때에는 상세히 脈의 陰陽·虛實·弦緊을 살펴서 病情의 寒熱虛實의 所在를 구하고 證에 根據해 立法한다. 혹 鍼灸를 하거나, 藥을 사용하거나, 鍼과 藥을 함께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 곧 안정된다. 病은 같은데 脈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辨證하고 病의 根原을 상세히 구해서 病情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免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잘 기억해야 한다.

本條에서 概括하고 있는 婦人雜病의 原因에 대해 注家들은 대부분 見解의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病症과 病機의 闡釋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두 體質에 따른 虛實寒熱의 차이와 病位의 臟腑經絡이 다른 것과 관계있다고 일치되게 생각한다.

【原文 9】

問曰 婦人年五十^① 所病下利^② 數十日不止 暮即發熱^③ 少腹裏急^④ 腹滿手掌煩熱^⑤ 脣口乾燥^⑥ 是何也 師曰 此病屬帶下^⑦ 何以故 曾經半產^⑧ 瘀血在少腹^⑨ 不去 何以知之 其証脣口乾燥 故知之 當以溫經湯主之^⑩

【校勘】

① 病下利: “利”는 誤字인데 “血”이 되어야 한다. 李文 彥은 “病所下利, 據本文帶下觀之, 當是崩淋下血

之病.”이라 했다. 吳謙은 “‘利’字, 當是‘血’字, 文義相屬, 必是傳寫之訛.”이라 했다. 이 說과 李氏의 見解를 승하여 고친다.

② 少腹裏急: 『脈經』卷九第四에는 “急” 아래에 “痛”자가 있다. 少腹裏急은 瘀血이 子宮에 癱着해서 생긴 것이다.

③ 手掌煩熱: 『脈經』에는 “掌” 아래에 “煩”자가 없다. 李文彥은 “手背爲陽, 掌心爲陰, 乃手三陰寸脈之處, 陰虛故掌中熱也.”라 했다.

④ 少腹: 『脈經』에는 “腹” 아래에 “中”자가 있다.

⑤ 當以溫經湯主之: 『脈經』에는 “以”가 “與”字로 되어있고, “主之” 두 字는 없다. 李文彥은 “此湯名溫經, 以瘀血得溫即行也. 方內皆補養氣血之藥, 未嘗以逐瘀爲事而瘀血自去者, 此養正邪自消之法也. 故婦人崩淋不孕, 月事不調者, 并主之.”라 했다. 吳謙은 “均用溫經湯主之者, 以此方生新去瘀, 暖子宮, 補衝任也.”라 했다.

【字句解】

(1) 年五十所: “所”와 “許”는 같고, “所”와 “許”는 古聲이 서로 비슷하다. “五十所”는 즉 오십 정도인데, “所”가 “許”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대부분 수의 아래에 있다.

(2) 脣口乾燥: 이것은 胞宮내에 瘀血이 있기 때문이다. 대개 子宮은 足厥陰肝經에 屬하는데, 그 經脈은 胃를 끼고 그 支脈은 口를 돈다. 이전에 遺產을 하면 子宮에 瘀血이 생겨 胃의 津液上布에 영향을 미치므로 脣口가 乾燥해진다. 尤怡는 “脣口乾燥, 血內瘀者, 不外營也.”라 했다.

【考察】

本條文은 衝任이 虛寒한데 瘀血이 낀 崩漏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人의 나이가 五十歲 前後가 되어 七七의 시기가 되면 精氣가 衰少하고, 衝任脈이 虛하고, 天癸가 竭해서 月經이 이론적으로는 정지해야하는데 도리어 前陰의 下血이 數十日 동안 그치지 않으면 확실히 비정상적인 月經이고 崩漏病에 속한다. 그 成因을 살펴보면 衝任의 虛寒에 瘀血이 끼어서 血이 經脈으로 돌아가지 못해서이다. 精血이 이미 虧損된 나이인데다가 下血이 수십일 동안 그치지 않으므로 陰血이 더욱 消耗되

고 陰虛하면 內熱이 되므로 暮即發熱 手掌煩熱이 생긴다. 衝任의 虛寒으로 少腹이 溫養을 잃게되면 寒凝氣滯瘀血이 되면 少腹裏急 腹滿이 생긴다. 瘀血이 下焦에 停滯해서 津液의 上濡를 防碍하므로 脣口乾燥가 생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本證은 衝任의 虛寒이 본이 되고 瘀血이 標가 되므로, 治療는 溫經散寒 養血行瘀 調補衝任하고 處方은 溫經湯을 사용해 治療한다.

本條의 主症인 “下利”에 대해 注家들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觀點이 있다. 하나는 原文을 따라 “下利”로 解釋하는 것인데, 趙以德·徐忠可·朱光被·曹穎甫 등 多數의 注家들이 이 見解를 지지했다. 또 다른 하나는 “下利”를 “下血”로 보는 것인데, 李紘·吳謙등이 이 見解를 지지했다. 文字學의 각도에서 보면 앞의 說이 합리적이거나, 本篇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뒤의 說이 더욱 적절하다. 暮即發熱 手掌煩熱이 생기는 病機에 대해서 注家들마다 다른 見解를 가진다. 瘀血의 化熱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徐忠可·尤在涇·朱光被 등이 있다. 陰虛內熱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李紘·程林등이 있다. 本證의 病理演變에 근거해서 보면 두 가지 見解 모두 가능한데, 方藥組成으로 보면 後者가 주요원인에 부합된다. “少腹裏急, 腹滿”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注家들마다 치중하는 바가 있다. 胞宮의 寒凝瘀血로 보는 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吳謙·曹穎甫 등이 고, 邪實에 무게를 두었다. 衝任脈의 虛에 乾血이 낀 것으로 보는 이도 있는데, 예를 들면 李紘이고 虛實錯雜을 강조했다. 下焦陰寒으로 보는 이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尤在涇·朱光被 등이고 虛寒에 착안했다. 發病年齡과 “瘀血在少腹不去”라는 原文에 근거해보면, 세 說을 함께 참고해야 病情에 부합되는 것 같다.

方中の 吳茱萸·桂枝·生薑은 溫經散寒하므로써 胞宮을 따뜻하게 한다. 當歸·川芎·芍藥·阿膠·麥門冬·牡丹皮는 滋陰養血하고 行血祛瘀한다. 人蔘·甘草는 益氣健脾하므로써 陰血生化의 根源을 돕는다. 半夏는 溫燥除濕하므로써 寒凝瘀血로 濕濁이 停滯되는 것을 막는다. 모든 藥을 함께 사용하면 衝任의 虛弱을 補할 수 있고, 胞宮의 寒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또 少腹의 瘀血을 없애 治本이 위주가

되면서도 標도 고려하는 것이 되므로, 衝任의 虛寒에 瘀血을 끼어 생긴 少腹寒冷, 오랫동안 妊娠하지 못한 者나 혹은 生理 때가 되어도 生理가 나오지 않는 것을 主治한다. “崩中去血或月水來過多”한 사람에게 溫經湯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辨證을 정확히 하고 氣虛로 인한 不攝이나 혹은 衝任의 伏火가 아님을 확실히 하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다.

【原文 10】

帶下¹經水不利¹¹하고 少腹滿痛¹²하고 經一月在見者¹³는 土瓜根散¹⁴主之¹⁵

【校勘】

① 帶下: 『脈經』卷九第四에는 “帶” 위에 “婦人”二字가 있다. 帶下는 婦人の 經血病이다.

【字句解】

- (1) 經水不利: 月經이 때에 맞게 있지 않고, 생리양이 혹 많거나 혹 적거나해서 고르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 (2) 少腹滿痛: 胞中の 畜血이 있으므로 少腹이 滿痛한다.
- (3) 經一月再見者: 徐彬은 “有瘀不利, 則前經行未暢者, 不及待後月正期, 乃一月而再見也.”라 했다. 曹家達은 “血分有熱, 故經一月而再見; 且行經之期, 卽以有所阻碍, 不得暢遂, 余血停頓, 遂與後月正期經水, 合併充物, 不及期而先事排泄, 滿者必溢, 理固然也.”라 했다.
- (4) 土瓜根散: 王肯堂은 “乃破堅下血之劑”(『證治準繩·女科準繩』)라고 했다.

【考察】

本條文은 瘀血로 月經이 不調하게되는 證治를 論하고 있다. 여기서의 “帶下” 두 字는 廣義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넓게는 婦人科 疾病을 가리킨다. 婦女가 月經이 때에 맞춰 이르지 않거나 生理가 순조롭지 않은 것에는 虛實의 다름이 있는데, 만일 小腹脹滿疼痛을 수반한 경우는 대부분 瘀血氣滯와 관계있다. 瘀血이 胞宮에 阻滯되어 衝任脈

이 失調되면 역시 한 달에 두 차례의 月經이 出現할 수 있다. 그러나 月經이 때가 되어도 이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經水의 不暢 혹은 한 달에 두 차례의 生理가 出現하는 것 모두 瘀血의 所致이다. 그러므로 行瘀通經해야 하고, 土瓜根散을 이용해 治療한다.

本條의 전체적인 病機에 대해서 諸家들은 瘀血로 인한 疾患으로 일치되게 인식한다. 단 “經水不利”의 구체적인 含義에 대해서는 注家들마다 다른 見解가 있다. 生理가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徐忠可·黃元御 등이다. 經行이 不暢利한 것으로 解釋하는 이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尤在涇·高學山 등이다. 黃樹曾은 經水가 때에 맞게 이르지 못하고 또 순조롭게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세 說은 각기 논리가 있으나 本證의 病機에 根據해서 臨床實際와 結合해보면 黃樹曾의 見解가 더욱 전면적인 것 같다. 이것 외에 “經一月再見”에 대해서도 역시 약간의 다른 見解가 있는데 적지 않은 注家들이 한 달에 두 차례의 生理가 出現하는 것으로 解釋하는데, 오직 吳謙은 “再”가 “不”字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두 說 모두 각기 根據하는 바가 있지만, 訓故學의 각도에서 보면 吳謙의 見解는 아직까지 根據가 不足해 보인다.

方中の 土瓜根은 王瓜根이라고도 하는데, 性味가 苦寒하고 破血消瘀의 作用이 있어 主藥으로 사용했다. 蟻蟲은 鹹寒하고 毒이 있으며 또 逐瘀破結할 수 있으므로 輔藥으로 사용했다. 桂枝는 溫通血脈하고, 芍藥은 通痺調營하므로 함께 佐使藥이 되었다. 네 藥을 함께 사용하면 破瘀行血, 調營通經의 效果를 볼 수 있다. 술을 사용해 위의 藥을 服用하는 것은 桂枝의 溫行血脈하는 作用에 협조해서 藥力을 돕기 위함이다. 本方은 陰顏腫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血瘀氣滯와 有關하기 때문에 異病同治할 수 있다. 그런데 “陰顏腫”이 어떤 病인지에 대해서는 注家들 대부분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近世의 注家들은 모두 세 가지의 解釋을 한다. 하나는 “陰器顏腫” 즉 男子에서는 疝症·女子에서는 子宮脫垂로 解釋하는데, 예를 들면 楊百菴 主編의 『金匱集釋』이 있다. 또 하나는 “男子陰器與少腹相連急痛之證”으로 解釋하는

데, 예를 들면 何任 主編의 『金匱要略校注』가 있다. 또 하나는 “男子前陰部位有如卵狀的包塊”로 解釋하는데, 예를 들면 杜雨茂等 編著의 『金匱要略闡釋』이 있다. 『本草綱目』 鱧鯉條 引摘玄方的 “婦人陰顏, 硬如卵狀”의 記載와 『湯本求真』이 말한 “陰顏卽鼠蹊陰囊陰脣部之假性腫痛, 是男女俱有之”에 根據해보면 杜氏의 說이 비교적 근접한 듯 하다.

【原文 11】

寸口¹⁾脈弦而大²⁾나 弦則爲減³⁾하고 大則爲芤⁴⁾로 減則爲寒⁵⁾하고 芤則爲虛⁶⁾나 寒虛相搏⁷⁾이니 此名曰革⁸⁾이고 婦人則半產漏下⁹⁾ 旋覆花湯主之¹⁰⁾

【校勘】

① 旋覆花湯主之: 吳謙은 “此條詳在『傷寒論·辨脈法篇』, 錯簡在此. ‘旋覆花湯主之’一句, 亦必是錯簡. 半產漏下, 則氣已下陷, 焉有再用旋覆下氣之理?”라 했다.

【字句解】

- 寸口: 살펴보면 “寸口” 아래의 四十三字는 本書에서 세 번 보인다. 『虛勞篇』에서 처음 보이고, 『衄血下血篇』에서 두 번째로 보이고, 本篇에서 세 번째로 보이는데 대체로 서로 비슷하고 字句에 약간의 차이만 있다. 吳謙은 앞에 책임을 두고 있고, 曹家達은 뒤에 무게를 두고 있다. 注家중에서 陸淵雷의 說이 타당한 듯 한데, 그는 “此條論與方, 後人所綴集也, 旋覆花行水下氣, 于半產漏下之虛寒證, 殊不對病. 新絳卽緝帛, 始見于陳藏器『本草拾遺』, 漢魏蓋未入藥, 然則本方是唐以後方, 當別有主治, 編次者妄綴于此條也.”라 했다.
- 減則爲寒, 芤則爲虛: 살펴보면, “寒”은 陽氣寒을, “虛”는 陰血虛를 가리킨다.
- 寒虛相搏, 此名曰革: 寒虛와 血虛가 相搏하면 革脈이 出現하는데 氣血兩虛의 證이다. 陳念祖는 “革脈不易明, 以弦減芤虛形容之, 則不易明者明矣.”라 했다.

【考察】

본 條文은 瘀阻에 虛寒을 兼해 생긴 半產漏下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本條의 내용은 本書의 『血痺 虛勞病』篇 12條와 『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篇 8條와 대체로 비슷한데, 모두 “寒虛相搏” “虛寒相搏” “寒虛相擊”으로 病機를 解釋한다. 이러한 病機는 婦人半產漏下·男子亡血·失精 등의 病症에 까지 연결되지만, 本條에서는 오로지 婦人半產漏下만 論했다. 婦人의 寸口脈에서 弦而大한 革脈이 나타나는 것은 陰虛血少와 관계있다. 陽虛裏寒 때문에 經脈이 溫養을 잃으면 脈이 弦하고 또 누르면 無力하므로 “弦則爲減”, “減則爲寒”이라 말했다. 血少虧虛해서 脈度가 충실치 못하면 脈이 扞大中空하므로 “大則爲扞”, “扞則爲虛”라 했다. 脈形이 弦하면서 無力하고 大하면서 中空한 모양은 革脈으로 陽虛內寒·血少虧虛와 관계있고, 陽虛해서 溫攝의 기능을 잃고 血少로 胞胎를 養하지 못하면 半產漏下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證에 대해 原文에서는 “旋覆花湯主之”를 主張하고 있지만, 方과 證이 부합되지 않아 보이므로 注家들마다 서로 다른 認識이 있었다. 어떤 觀點은 이것에 錯簡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吳謙·曹穎甫와 같은 이들이 있다. 또 다른 한 觀點은 文章을 따라 뜻을 解釋하는데, 어떤 이들은 먼저 本方으로 結聚된 邪氣를 먼저 풀고 뒤에 다시 溫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趙以德·高學山과 같은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本方으로 開結解鬱하고 溫行血氣해서 漏下가 멈추고 新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徐忠可·李杲尤在涇 등이 있다. 이상의 觀點들은 각기 根據하는 바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觀點이 생긴 이유는 本證의 病機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때문이다. 만약 虛寒에 착안하면 吳謙 등의 說이 확실히 일리가 있다. 만약 陽虛寒凝으로 血瘀가 되어 瘀血이 內阻되고 新血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病機變化에 주의한다면 徐忠可 등의 觀點 역시 일리가 있다. 다시 臨床實踐과 結合시켜보면 徐氏 등의 見解가 더욱 意義를 啓發한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따른다. 분명히, 瘀阻에 濕寒을 兼해 생긴 婦人의 半產漏下에 旋覆花湯을 써서 治療하는 것은 方과 證이 부합되지 않는다.

本方은 이미 『五臟風寒積聚病』篇에서 肝着을 治療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婦人의 半產漏

下를 治療하니 이것은 異病同治이다. 方中の 旋覆花는 性이 溫하고 味가 鹹하며, 開結氣하고 通血脈한다. 新絳은 도대체 무슨 藥인지 모른다. 淸參은 앞의 제 11章에 보이고 여기서도 사용했는데, 活血行瘀해서 漏下를 그치게 하고 辛溫通陽하는 것을 취한 것이다. 세 藥을 함께 사용하면 開結通絡하고 行瘀止漏하는 效果를 볼 수 있다.

【原文 12】

婦人陷經¹⁾漏下²⁾하고 黑不解³⁾하면 膠薑湯主之⁴⁾라

【校勘】

① 婦人陷經: 陸淵雷는 “舊讀 ‘陷經漏下’爲句, 非也. 應 ‘陷經’爲句, ‘漏下’當與下 ‘黑’字連讀. ‘陷經’是病名, ‘漏下黑’是證候.”라 했는데 이 說이 옳다. 沈明宗은 “經血陷而不升, 故爲 ‘陷經’이라 했다.

【字句解】

- (1) 漏下黑不解: 『病源』卷三十八 『漏下候』에서는 “婦人血非時而下, 淋瀝不斷, 謂之漏下.”라 했고, 『漏下黑候』에서는 “腎臟之色黑, 漏下黑者, 是腎臟之虛損, 故漏下而挾黑色也.”라 했다. “不解”는 漏下의 血이 黑色인 것이 除去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慧琳는 『音義』賈注에서 “解, 除也.”라 했다.
- (2) 膠薑湯主之: 살펴보면 膠薑湯은 本書에는 處方이 없고, 林億 등은 膠艾湯을 대신했다. “薑”과 “艾”는 性味가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와 같이 混同할 수 있는가? 本書의 處方들로 헤아려보면 藥으로 處方의 이름을 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百合地黃湯·甘草乾薑湯·半夏麻黃湯·大黃甘草湯·半夏乾薑散 등이 있다. 만약 이와 같다면 “膠薑湯”은 阿膠와 薑이다. 오직 어떠한 薑을 사용했느냐 乾薑이나? 生薑이나? 炮薑이나? 가 문제인데, 仲師가 說明을 하지 않아 後人들은 그 뜻을 두고 다투었다. 李文彥은 “此薑是 ‘炮薑’. 乾薑之辛, 炮之則苦, 守而不移, 功能止血. 薑炒黑則能引補血藥入陰分, 血得補則陰生熱退, 且黑爲水色, 故血不妄行也.”라

했는데, 여기에 그 說을 남겨둔다.

【考察】

본 條文은 婦人陷經의 證治를 論했다. 婦人의 經血이 下陷해 下血이 오랫동안 그치지 않는 것은 陷經에 屬하는데, 자세히 나누면 漏下와 崩中의 區分이 있다. 漏下는 下血量이 적고 淋漓하면서 그치지 않는 것이 特點이고, 崩中은 下血量이 많고 발생이 급한 것이 主가 된다. 本證의 表現이 “漏下黑不解”이므로, 下血이 黯黑하고 淋漓不止가 主症이므로 그 原因을 연구해보면 衝任의 虛寒으로 氣不攝血해서 經血이 下陷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溫經養血止漏해야 하고, 膠薑湯을 사용해 主治한다.

本證의 病機에 대해 注家들마다 약간씩 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다. 어떤 觀點은 瘀滯가 있다는 것인데 徐忠可·尤在涇은 寒에 瘀가 兼했다고 말했고, 李紘은 虛에 瘀가 끼었다고 했다. 어떤 觀點은 瘀滯가 없다고 했는데 高學山·黃樹曾은 氣血虛에 책임을 두었고, 黃元御는 腎寒에 책임을 두었다. 여러 注家들은 각기 根據하는 바가 있는 듯하지만, 本章 前條에 이미 虛寒에 瘀가 낀 崩漏의 溫經湯證을 論한게 있으므로, 뒤의 說이 더 타당해 보인다.

本章의 崩漏는 8條의 溫經湯證과 11條의 旋覆花湯證에도 이미 있는데, 그 中에는 虛에 무게가 있는 것도 있고, 實에 무게가 있는 것도 있고, 虛實이 挾雜된 것도 있는데, 아래에 表로 比較해 둔다.

病證	成因	主證	治法	方藥
崩漏	衝任虛寒夾瘀, 血不歸經	下血數十日不止, 暮即發熱, 少腹裏急, 腹滿, 手掌煩熱, 脣口乾燥	溫經散寒 養血行瘀 調補衝任 (補虛爲主, 兼以祛瘀)	溫經湯(吳茱萸三兩, 當歸二兩, 芍藥二兩, 芎藭二兩, 人參二兩, 桂枝二兩, 阿膠二兩, 生薑二兩, 牡丹皮(去心)二兩, 甘草二兩, 半夏反升, 麥門冬一升(去心))
半產漏下	瘀血內阻爲主, 兼陽虛內寒, 血少虧虛	半產漏下, 脈弦而大, 但却無力而中空	開結通絡, 行瘀止漏 (祛邪爲主)	旋覆花湯(旋覆花三兩, 葱十四莖, 新降少許)
漏下	衝任虛寒, 經血下陷	漏下色黑, 久不解	溫經養血 止漏 (補虛爲主)	膠薑湯(方未見)

原方이 散佚되었기 때문에 歷代 醫家들은 그 藥物組成에 대해 모두 아래의 여섯 종류의 見解가 있었다. ①膠艾湯으로 인식하는데, 林億·徐忠可·高學山 등이다. ②膠艾湯加乾薑으로 인식하는데, 陸淵雷·曹穎甫 등이다. ③阿膠·生薑으로 인식하는데, 陳修園·黃樹曾 등이다. ④阿膠·乾薑으로 인식하는데, 魏念庭·尤在涇·黃元御 등이다. ⑤阿膠·艾葉·乾薑으로 인식하는데, 趙以德 이다. ⑥阿膠·炮薑으로 인식했는데, 李紘 이다. 여러 說들이 모두 일리가 있어, 실제로 定論을 定하기가 어렵다. 臨證에는 그 病機特點에 根據해서 情況을 參酌하여 選用하지만 治療原則은 養血溫經止漏가 要點이다.

【原文 13】

婦人少腹滿如敦狀^①하고 小便微難而不渴生後^②者는 此爲水與血俱^③結在血室也^④ 大黃甘遂湯主之^⑤

【校勘】

- ① 如敦狀: 『脈經』卷九第六에서는 “敦敦狀”이라 했다. 唐宗海는 “敦, 古之盛黍稷器, 與今之碗相似. ‘如敦狀’ 卽謂脹滿象今之碗狀.”이라 했다.
- ② 俱: “俱”는 元刻本, 『脈經』과 『婦人大全良方』모두

“并”字로 되어있다.

【字句解】

- (1) 生後: 즉 産後이다. 注는 或 生病後者를 말하기도 하고 或은 “生”이 “經”의 誤字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모두 틀렸다. 『婦人大全良方』卷二十四는 이것을 “産後”라 했다.
- (2) 結在血室也: 曹家達은 “婦人未産時, 水與血俱供養胎, 臨産則送小兒及胞衣出産文, 一時不能暢泄, 余者遂留積胞中, 因成少腹滿證.”이라 했다.
- (3) 大黃甘遂湯主之: 本方은 水血을 공격하는 것을 겸하는데, 攻下劑중에서 다른 하나의 성격을 가진다. 經方中에서 攻血하는데는 抵當湯이 首長이고, 攻水하는데는 十棗湯이 首長이다. 그러나 두 處方은 모두 攻血하거나 攻水하는 藥物을 모은 處方이므로 主治가 血이나 水에 偏重되어 있지만, 本方은 攻血하는 大黃과 攻水하는 甘遂가 합해진 處方이므로 서로 互用되어 收와 攻의 效果를 겸한다. 더욱이 養血育陰하는 阿膠를 配伍하여 膠結을 排除하는 외에 정상적인 水血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으니 處方을 만 든 정미로움이 지극하다.

【考察】

본 條文은 婦女의 水血이 함께 血室에 結한 證治를 論했다. 婦女가 少腹이 아프고 脹滿하면서 북처럼 隆起되는데, 妊娠이 아니라면 대부분 有形의 邪氣가 下焦에 結했기 때문이다. 이 時期에 만약 輕微한 小便排出 困難을 隨伴하고 입도 마르지 않다면 下焦의 氣化功能에 가벼운 失常이 있음을 表明하는 것이다. 그러나 小便이 약간 困難한 이런 病情은 下焦停水로 小腹胀滿이 出現할 수 있으나 “如敦狀”에 까지 이르지 않으므로, 이것은 本證에 다른 邪聚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出産한 후에 發病했다면 胞室中에 積血의 內停이 있을 수 있다. 水와 血 모두 有形의 邪氣인데, 둘 모두 血室에 結하면 “少腹滿如敦狀”이 出現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大黃甘遂湯을 사용해 破瘀逐水하는 것이다.

本條에 대한 注家들의 見解 차이는 “生後者”에 集中되는데, 歸納해보면 대략 5種으로 볼 수 있다.

- ① “生産之後”로 解釋하는데, 尤在涇·黃元御·高學山 등이다.
- ② “生育之後”로 解釋하는데 吳謙이 있다.
- ③ “生病之後”로 解釋하기도 한다.
- ④ “生”字를 “經”字의 잘못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趙以德이 있다.
- ⑤ 衍文으로 의심하기도 하는데 朱光被가 있다. 이상의 여러 說들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經後·病後·産後·或 生育之後를 막론하고 모두 胞室의 積血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상의 모든 說을 함께 參考할 수 있다.

本證은 이미 有形의 水血이 血室에 結聚되었으므로 治療는 그 結聚된 곳에 따라 攻下法을 쓴다. 그러므로 大黃을 사용해 破血結하고, 甘遂를 사용해 逐水邪하며, 두 藥을 함께 사용해서 血室 가운데 結聚한 實邪를 蕩滌한다. 그러나 그 藥力이 峻猛한 것을 염려해 滋陰養血하는 阿膠를 사용하여 本方이 邪氣를 공격하되 正氣를 傷하지 않게 했다.

【原文 14】

婦人經水不利下¹⁾이²⁾ 抵當湯主之³⁾라

【校勘】

- ① 不利下: 『脈經』卷九第五에는 “不利”아래에 “下”字가 없는데, 마땅히 삭제해야 할 듯하다.

【字句解】

- (1) 抵當湯主之: 吳謙은 “婦人經水不利, 乃恒有之病, 不過活瘀導氣, 調和衝任, 足以愈之. 今日抵當湯主之. 夫抵當重劑, 文內并無少腹結痛, 大便堅, 小便利, 發狂善忘, 寒熱等證, 恐爲病輕, 必有殘缺錯簡, 讀者審之”라 했다.

【考察】

본 條文은 瘀結成實로 인한 經水不利下の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女의 經水가 不利에서 不下로 발전하는 것에는 虛實의 區別이 있고, 이 證은 功瘀逐血의 抵當湯을 사용해서 治療하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瘀血結滯로 衝任이 阻塞을 받은 經閉에 속한다. 處方으로 症을 推定해보면, 本證은 經水不下의에 少腹硬滿疼痛或拒按 舌青黯或尖邊有瘀點

脈沈弦或沈澁有力등의 瘀血症을 수반한다.

原文의 “經水不利下”一句에 대해서 注家들 마다 서로 다른 解釋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經閉로 解釋하는데 尤在涇·陳修園·黃樹曾등이 있고, 하나는 經行不暢으로 解釋하는데 吳謙이 있다. 두 說의 觀點이 다르지만 抵當湯이 瘀血을 攻逐하는 峻劑라는 점으로 생각해보면 本證은 반드시 瘀結成實의 重證이므로 經閉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

方中の 水蛭은 味苦性平하고 有毒하다. 虵蟲은 味苦 涼하고 역시 有毒하다. 둘은 모두 蟲類藥이다. 함께 사용하면 破血逐瘀通經한다. 大黃·桃仁은 破血行瘀할 수 있다. 모든 藥을 함께 사용하면 逐瘀破結의 效能을 볼 수 있다. 本方은 藥力이 峻하고 效果가 빠르고, 性이 寒涼에 치우쳐있으므로 瘀熱經閉의 實證에 적합하다. 本方과 土瓜根散은 모두 破瘀通經의 處方이지만, 이것은 湯劑이고 藥力이 峻猛하고 性이 涼에 치우쳐있고, 저것은 散劑이고 藥力이 조금 緩慢하고 性이 溫에 치우쳐있어 각기 다른 점이 있으므로 아래에 表로 비교해 본다.

方名	適應症	功效
抵當湯	破結成實的經閉(偏瘀熱), 證見月經不下, 少腹硬滿疼痛, 或拒按	破瘀破結 通經
土瓜根散	血瘀月經不調(偏血瘀兼寒), 證見月經不能按期而至, 或經行不暢利, 伴小腹脹滿疼痛	破瘀行血 調營通經

【原文 15】

婦人經水閉不利⁽¹⁾하고 臍⁽²⁾堅癖不止⁽³⁾하여 中有乾血⁽⁴⁾하고 下白物⁽³⁾하면 礬石丸主之⁽⁴⁾

【校勘】

① 經水不利: “閉”은 積塊이다. “不利”는 除去되지 않음이다. 『呂氏春秋·制藥』에서 高注는 “止, 除也.”라고 했고, 『淮南·說山』에서 高注는 “止, 猶去也.”라 했다. 沈明宗은 “‘止’ 當作 ‘散’字”라 했다. 실제로는 옛 뜻을 통해 알듯이 반드시

고칠 필요는 없다.

【字句解】

- (1) 經水閉, 不利: “經水閉”는 月經이 閉止되어 나오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不利”는 經期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혹은 生理量이 많거나 적은 것이다.
- (2) 臍: 子宮을 가리킨다. 『本草綱目』卷十一 “礬石”條에서는 “子臍”으로 引用하고 있다.
- (3) 下白物: 白物은 즉 白帶下이다. 尤怡는 “經閉不利, 由是畜泄不時, 胞宮生濕, 濕復生熱, 所積之血, 轉爲濕熱所腐, 而成白物時時自下.”라 했다.
- (4) 礬石丸主之: 尤怡는 “礬石却水除熱, 有澄清之功, 惟治白物從濕化者則可, 恐未能攻堅癖乾血也.”라 했다.

【考察】

본 條文은 瘀積과 濕熱이 兼한 帶下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人이 經閉해서 月經不行하거나 月經不暢하고, 兼하여 子宮內에 堅硬한 積塊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內部에 瘀血이 있기 때문이다. 痰이 막혀 氣가 滯하고, 濕이 모여 熱로 化하면 濕熱이 下注한다. 곧 濕熱帶下를 계속 발생하게 해 “下白物”이 出現하게 된다. 이 證은 礬石丸을 外用해 燥濕止帶해서 그 標를 治療할 수 있다. 瘀血이 內結한 病의 根本은 마땅히 破血逐瘀劑를 주어 治療한다.

方中の 礬石은 味가 酸澁하고 性은 涼하고, 燥濕收斂 解毒殺蟲의 功能이 있고, 燒煨하게 된 후에는 枯礬이 되는데 燥濕의 功能이 더욱 증가한다. 杏仁은 質이 潤하고 기름이 많아 礬石의 燥澁이 太過해서 局部가 乾澁不適해지는 것을 막는다. 滋潤한 꿀로 棗核大의 丸을 만든 것은 陰道속으로 넣을 때 順利하게 하고, 緩慢이 녹으면서 작용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준다.

【原文 16】

婦人六十二種風⁽¹⁾에 腹中⁽²⁾血氣刺痛⁽³⁾하면 紅藍花酒主之⁽⁴⁾

【校勘】

① 及腹中: 徐注本, 尤注本 모두 “及” 字가 없다. 『證類本草』卷十二 “紅鹽花”條 『圖經』에서는 張仲景을 引用하여 이 세 자를 “兼腹內”로 고쳤다.

【字句解】

- (1) 六十二種風: 魏荔彤은 “此六十二種之風名, 不過言風之致證多端, 爲百病之長耳, 不必救其文而鑿救之.”라 했다. 尤怡는 “婦人經盡産後, 風邪最易侵入腹中”이라 했다.
- (2) 血氣刺痛: 尤怡는 “風與血氣相搏而作刺痛. 刺痛, 痛如刺也.”라 했다.

【考察】

본 條文은 婦女의 血瘀腹痛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人은 外感風邪뿐만 아니라 寒邪도 단지 血瘀不通해서 일어나는 腹中刺痛에 屬하면 곧 活血行瘀止痛하는 紅鹽花酒를 사용할 수 있다.

原文中的 “六十二種風”이 가리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歷代 注家들의 見解가 같지 않은데, 대략 3 種類로 歸納된다. 한 종류는 考證할 수 없다는 것인데, 徐忠可·尤在涇·吳謙 등이다. 또 한 종류는 이것에서 진행해 本條가 仲景의 方과 法이 아닐 거라는 의심을 품는 쪽인데, 趙以德·林億 등이다. 한 종류는 이것을 病因으로 보는데, 李紘·魏念庭·黃元御 등이다. 모든 說明은 각기 根據가 있고, 모든 말에 다 조리가 있다. 그런데 아래 文章과 方藥을 結合해보면 현재의 學者들은 대부분 세 번째 見解를 따른다. 이것 외에 本證의 病機에 대해 注家들의 대부분은 瘀血로 인식하는데, 그 成因에 대해서는 각기 치중하는 쪽이 있다. 어떤 이들은 外部의 風과 寒에 치우쳐 책임을 두는데, 朱光被·張隱菴 등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內風에 책임을 지우는데, 예를 들면 黃元御가 있다. 어떤 이들은 內外風 모두에 책임을 지우는데, 예를 들면 徐忠可·李紘·高學山 등이 있다. 紅鹽花酒의 功效에 근거해보면 朱光被·張隱菴의 見解가 비교적 타당해 보인다.

方中の 紅鹽花(즉 紅花)는 辛溫하고, 活血行瘀止痛할 수 있는데, 술을 이용해 달이면 本方의 溫行血脈의 功을 強化할 수 있다. 本方은 앞의 土瓜根散·抵當湯과 비교하면 비록 세력이 낮고 힘이 약

하지만, 血瘀證에 대해서는 확실히 현저한 效果가 있다.

【原文 17】

婦人腹中諸疾痛¹⁾은 當歸芍藥散主之²⁾

【字句解】

- (1) 婦人腹中諸疾痛: 曹家達은 “婦人腹中諸疾痛, 大要由于水濕太甚, 血鬱不通, 懷孕之人, 水血俱停, 人盡知之, 不知雜病亦有相類者. 蓋婦人血常不足, 血不足而水濕有餘, 乃鬱結于太陰腹部而爲痛. 此方泄濕行血, 故可通治, 要不惟爲妊娠說也.”라 했다.
- (2) 當歸芍藥散主之: 『脈經』卷九第五 細注에는 “一云: 治懷妊腹中疼痛.”이라 했다. 吳謙은 “諸疾腹痛, 則寒熱虛實氣食等邪, 皆令腹痛, 豈能以此一方概治諸疾痛耶? 當歸芍藥散主之, 必是錯簡”이라 했다.

【考察】

본 條文은 婦女의 肝脾不調로 인한 腹痛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女腹痛의 原因이 매우 많지만, 대부분 寒熱諸因·正虛邪實·氣血不調 등이 모두 일으킬 수 있고 臨證에서는 대체로 情志失調로 氣鬱不暢해서 생긴 것이 많다. 情志不遂는 항상 肝脾失調를 일으키고, 肝이 調暢의 기능을 잃으면 氣鬱血滯가 되고, 脾氣가 運行되지 않으면 濕이 內部에서 생겨 氣鬱·血滯·濕阻가 되고, 經脈이 不通하게 되어 腹中疼痛이 된다. 그러므로 調肝脾·理氣血·利水濕의 效能을 가진 當歸芍藥散으로 治療한다.

本證의 病機에 대해 歷代 注家들 마다 각기 치중하는 바가 있다. 어떤 이들은 血虛에 치우친 책임을 두었는데, 徐忠可·李紘 등이 있다. 어떤 이들은 肝鬱에 무게를 두었는데, 汪近垣이 있다. 어떤 이들은 血虛肝鬱에 치우쳐 말했는데, 朱光被가 있다. 어떤 이들은 肝木乘土, 氣滯血凝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했는데, 趙以德·黃元御가 있다. 어떤 이들은 血虛濕阻를 兼해 말했는데, 尤在涇·高學山·曹穎甫 등이 있다. 여러 說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因果가 되고, 當歸芍藥散의 效能을 結合하면 여러 說을 합쳐 參考해야 全面的이 될듯 하다.

【原文 18】

婦人腹中痛⁽¹⁾은 小建中湯主之⁽²⁾라

【字句解】

- (1) 婦人腹中痛: 本條에서는 脈과 證이 詳細하지 않다. 『傷寒論』100條에서 小建中湯의 脈象을 말하면서 “陽脈澁, 陰脈弦”이라 했다. 그리고 本書 『虛勞病篇』에서는 “其脈浮大”라고 했고, “腹中痛”外에 悸·衄·夢失精·四肢煩疼·手足煩熱·咽乾口燥 등의 症狀을 더 增加시켰는데 한 處方의 不同한 用法은 사람의 思考를 啓發해준다.
- (2) 小建中湯主之: 張璠는 “小建中專主風木勝脾之腹痛, 而婦人喜怒, 易動肝火, 火邪乘土, 多有腹痛, 經水妄行之疾, 故以此湯主之.”라고 했다. 尤怡는 “營不足則脈急, 衛不足則裏寒, 虛寒裏急, 腹中則痛, 是必以甘藥補中緩急爲主, 而合辛以生陽, 合酸以養陰, 陰陽和而營衛行, 何腹痛之有哉?”라고 했다.

【考察】

본 條文은 婦女의 脾胃虛寒으로 인한 腹痛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女의 腹中痛은 甘溫하고 中焦를 健實하게 하는 小建中湯으로 治療하는 것을 主張하고, 그 腹痛이 脾胃虛寒이나 氣血不足, 經脈이 溫養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表明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腹痛은 반드시 喜溫喜按하고, 항상 心悸·夢搖·四肢酸軟·神疲乏力·納少便溏 등의 症狀을 수반할 수 있다.

本條 腹痛의 病機에 대해 注家들 마다 치중하는 바가 있는데 ①脾氣虛에 주로 책임을 두는 이도 있는데, 李杲·吳謙 등이 있고; ②血虛에 치우쳐 책임을 두는 이도 있는데, 徐忠可가 있다; ③脾胃陽虛로 인한 裏寒에 무게를 두는 이도 있는데, 尤在涇·朱光被·高學山 등이 있다. 실제로, 이상의 여러 說들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데, 本書의 『虛勞病』篇의 小建中湯證의 病機特點과 小建中湯의 功效를

結合해 보면, 위에서 말한 각종 情形들은 서로 共存할 수 있으므로, 諸家의 見解를 마땅히 함께 참고해야 한다.

【原文 19】

問曰⁽¹⁾ 婦人病飲食如故⁽²⁾하고 煩熱不得臥⁽³⁾而反倚息⁽⁴⁾者是何也
 오 師曰 此名轉胞⁽⁵⁾로 不得溺也⁽⁶⁾라 以胞系了戾⁽⁷⁾하야 故致此病
 하니 但當利小便則愈⁽⁸⁾腎氣丸主之⁽⁹⁾라

【校勘】

- ① 問曰: 『脈經』卷九第七에는 “問曰”아래에 “有一” 두 字가 있다.
- ② 此名轉胞: 『脈經』에는 “此名”이 “得病”으로 되어있다. 『病源』卷十四『胞轉候』에는 “轉胞”가 “胞轉”으로 되어있다. 余無言은 “二者同爲一病. ‘胞’尿管, 卽膀胱. ‘轉’卽所謂‘了戾’. 膀胱在少腹, 爲一囊狀飢質物, 根本無紐戾之理, 以胞系之系字測之, 必爲兩旁之輸尿管無疑.”라 했다.
- ③ 不得溺也: 『脈經』에는 “溺也”아래에 “何以故? 師曰: 此人故肌盛, 頭舉身滿, 今反羸瘦, 頭舉中空感”이라는 二十三字가 있다. 『病源』卷四十『胞轉候』에서는 張仲景의 文章을 引用한 것과 『脈經』의 字句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 後人이 『金匱』에 刪減의 痕迹을 證明할 수 있다. “不得溺”三字는 本條의 主要症狀인데, 이것과 小便難·小便不利는 다른데, 이른바 難·不利는 단지 小便이 不暢하고 小便을 볼 수 없는 것이지 点滴은 모두 없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利小便”하면 낫는다고 했다.

【字句解】

- (1) 飲食如故: 脾胃에 病이 없음을 說明한다. 徐彬은 “不見寒熱, 而飲食如故, 則是表裏無邪.”라고 했다.
- (2) 煩熱不得臥: 吳謙은 “陽氣不行, 故煩熱也.”라 했다. 徐彬은 “下氣上逆, 膈受之, 則內熱而煩.”이라 했다.
- (3) 倚息: 倚息은 呼吸이 短促하고 氣가 接續되지 않는 것이다. 吳謙은 “水不得下行, 故倚息而不得臥.”

라 했다. 徐彬은 “陽陰之氣下行, 逆則氣高, 不能循呼吸之常, 乃倚息而如喘也”라 했다.

- (4) 了戾: 둘둘 감는 것이다. 『說文』“了”段의 注에서 “凡物二股或一股結糾紛縛, 不直伸者曰‘了戾’.” 『方言』“紕, 戾也.”라 했다. 張舜徽는 『說文解字約酒』에서 “了, 有糾纏, 結義.”라 했다.
- (5) 腎氣丸主之: 李文彥은 “方名腎氣丸者, 氣屬陽, 補腎中眞陽之氣. 內具六味丸壯腎水, 以資小便之源; 桂附益命門火, 以化膀胱之氣, 則薰蒸津液, 水道以通而小便自利, 此所以不用五苓散, 而用腎氣丸也.”라고 했다.

【考察】

본 條文은 婦女의 腎陽不足으로 인한 轉胞證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人이 轉胞證을 앓아 小便不通하는 것에는 여러 原因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忍尿入房·胎重壓迫·脾虛濕盛·肺氣壅塞·腎陽不足 등이 있다. 이미 “飲食如故”라고 말한 것은 病이 中焦에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고, “宜腎氣丸主之”라고 主張한 것은 本證이 腎陽不足으로 氣化失司해서 膀胱과 그 脈絡등의 組織의 回旋曲折에 미쳐 배뇨기능의 喪失을 일으키므로 “不得溺也”라고 한다. 水道가 막혀 濁陰이 排泄될 수 없어 逆으로 上衝해 肺氣의 肅降을 妨礙하므로 煩熱倚息 不得平臥하고, 이외에 少腹急脹而痛을 항상 수반한다. 그러므로 腎氣丸의 溫陽化氣하는 效能을 이용해 小便이 通利하기를 기다리면 모든 症狀이 스스로 낫는다.

【原文 20】

婦人陰寒¹⁾이던 溫²⁾陰中坐藥¹⁾ 이니 蛇床子散²⁾主之라

【校勘】

- ① 溫: 『脈經』卷九第七에는 “溫”위에 “婦人陰寒”이라는 네 字가 있는데, 이에 根據해 補充한다.

【字句解】

- (1) 陰中坐藥: 吳謙은 “陰中, 卽前陰也.”라 했고, 黃樹曾은 “不內服, 只納入陰中之藥, 謂之坐藥.”이라 했다. “坐藥”아래에 『脈經』에는 “蛇床子散主之”

라는 여섯 字가 있는데, 이에 根據해 補充한다.

- (2) 蛇床子散: 살펴보면, 앞의 處方인 磐石丸과 本方은 모두 坐藥이지만 磐石丸은 濕熱을 治療하고 本方은 寒濕을 治療하므로 主治의 差가 있다.

【考察】

본 條文은 寒濕陰冷의 外治法을 論하고 있다. 原文은 비록 簡略하지만, “溫陰中”의 세 글자와 『脈經·卷九』에 실린 “婦人陰寒, 溫陰中坐藥, 蛇床子散方”으로부터 本證에서 陰中寒冷이 主證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本篇 제 8條에서 말한 “胞門寒傷”은 陽虛寒濕이 胞宮에 浸淫해서 陰戶에 미쳤기 때문이므로 帶下清稀色白, 或陰痒, 或陰中掣痛·少腹冷痛·或腰痠重墮 等症을 항상 수반한다. 그러므로 蛇床子散을 坐藥으로 外用해서 助陽暖宮·散寒燥濕한다.

本證의 病因에 대해 歷代 注家들은 약간의 見解 차이가 있다. 한 종류는 風寒이나 寒濕이 陰中에 있어서 생긴다고 인식했는데, 趙以德·尤在涇이 있다. 또 한 종류는 陽虛해서 寒濕을 받아 생긴다고 인식했는데, 沈明宗·黃元御가 있다. 두 說은 각기 根據하는 바가 있으나, 蛇床子散의 功效로 볼 때 뒤의 說이 좀더 전면적으로 보인다.

方中の 蛇床子는 辛苦溫한데 苦는 燥濕하고 溫은 助陽散寒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서 사용한 것은 그것이 助陽暖宮·散寒除濕의 效能을 취한 것이다. 方中の 白粉이 무슨 물건인지 歷代 注家들의 見解는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米粉”으로 인식했는데, 趙以德·程云來·李紘 등이 있고 그 중에 黃樹曾은 “炒米粉”이라 했다. 어떤 이는 “鉛粉”이라 인식했는데, 曹穎甫가 있다. 鉛粉이 甘辛寒하고 有毒하며 殺蟲을 잘 하고 또 生肌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鉛粉”은 “藉之以和合也”와 “燥香以除濕穢”를 가지고 있다. 上述한 두 見解는 모두 각기 理致가 있어서 지금은 定論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함께 남겨 둔다. 臨證時에 만약 鉛粉을 사용하려면 量은 마땅히 적어야 하고, 또 中毒을 면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사용치 말아야 한다. 孕婦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方後注에 “綿裹納之”로 藥力을 集中시켜 邪氣가 있는 곳을 따뜻하게 해서 速效를 보게 했다.

【原文 21】

少陰脈滑而數^①者陰中^②即生瘡^③或陰中蝕瘡爛^④者^⑤狼牙湯洗之^⑥

【校勘】

- ① 陰中: 『脈經』에는 “陰” 위에 “婦人”이라는 두 자가 있다.
- ② 者: 『脈經』에는 “者”자가 없다.

【字句解】

- (1) 少陰脈滑而數: 少陰脈은 左尺脈이다. 尤怡는 “脈滑者, 濕也; 脈數者, 熱也.”라고 했다. 曹家達은 “脈滑而數, 屬下焦濕熱.”라고 했다.
- (2) 生瘡, 蝕瘡爛: 吳謙은 “生瘡蝕爛, 乃濕熱不潔, 而生蠱也.”라 했다. 살펴보면, 本條에서 말한 陰瘡의 治療法은 단지 外治法이다. 宋代의 陳自明은 『婦人大全良方』에서 內治說을 提出하고 아울러 症狀를 補充했는데 “陰中生瘡, 或痛或痒, 如虫行狀, 膿水淋漓.”이라 했다. 즉 心神煩鬱과 脾胃虛弱으로 氣血이 留滯되었기 때문이지 단지 濕熱때문은 아닌 것 같다. 逍遙散을 內服하면서 加味歸脾湯을 兼服하거나 간혹 蘆薈丸이나 鶴虱草를 달여서 씻거나 혹은 蒲黃을 갈아서 쓰거나 하는 方法들이 전해져 온다. 사용할 만한 것이지는 의문이지만, 여기에 기록해 參考하게 한다.

【考察】

本條文은 下焦濕熱로 인한 前陰蝕瘡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少陰脈으로 주로 腎을 알 수 있고, 腎은 二陰을 主管한다. 少陰脈이 滑하고 數한 것은 下焦濕熱溫結의 證이다. 濕熱이 前陰에 鬱遏하면 前陰은 糜爛으로 瘡이 생기고 동시에 恒상 陰中灼熱·痒痛不適 등을 수반한다. 만약 濕熱이 下注하면 또 帶下를 兼하므로 狼牙湯을 사용해서 清熱燥濕·殺蟲止痒 하므로 陰中에 浸漑해서 外治한다.

方中の 狼牙草는 味苦性寒한데 寒은 勝熱하고 苦는 燥濕하므로 清熱燥濕 殺蟲止痒하는 效능을 이용해서 綿으로 고치모양으로 싸서 藥液에 묻혀 陰中에 넣어서 직접 患處에 接觸시켜 그 效果가 아주 빠르다.

方中の 狼牙草가 무엇인지에 대한 醫家들의 見解는 같지 않다. 첫 번째는 『漢藥神效方』처럼 “狼牙即野蜀葵, 或木藍”이라 했다. 『中藥大辭典』의 記載에 근거해보면, 野蜀葵는 鴨兒芹의 異名이고, 그 기원식물은 繖形科 식물인 鴨兒芹이다. 그 명칭은 『國藥提要』에서 처음 보인다. 『別錄』에는 “三葉·起莫·三石·當田”이라 했다. 功效는 消炎·解毒·治血·消腫이다. 木藍은 『本草圖經』에 처음 記載되어 있는데, 기원식물은 콩과식물인 木藍이고, 清熱解毒과 祛瘀止血的 效能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狼牙草는 後代의 “龍芽草” 즉 “仙鶴草”라고 當代의 醫家인 葉橘泉이 주장한다. 『中藥大辭典』을 살펴보면, 仙鶴草에는 확실히 “狼牙草”라는 異名이 있다. 세 번째는 狼毒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吳謙과 陳念祖가 있다. 狼毒을 살펴보면, 『本經』에서는 “味辛, 平, 主咳逆上氣……惡瘡, 鼠瘻疽蝕, 蠱毒”이라 했다. 이상의 여러 說들은 각기 보는 觀點이 다르고 각기 根據하는 것이 있지만, 모두 根據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고 定論을 定하기가 실로 어려우므로 여기에 모두 記載해둔다.

本章의 磐石丸·蛇床子散·狼牙湯은 모두 婦女雜病의 外治方이고 모두 帶下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功效나 主治는 각기 辨證되는 것이 있으므로 아래에 表로 비교해 둔다.

方名	適應症	功效
磐石	瘀阻氣滯, 釀生濕熱的帶下證, 以帶下黃稠量多臭穢爲主, 伴經閉或經行不利, 可兼陰痒	燥濕收斂止帶
蛇床子散	陽虛兼寒濕的陰冷證, 以自覺陰中寒冷, 或陰痒, 或陰中掣痛, 少腹冷痛, 或腰肢重墜, 或帶下清稀色白爲特點	助陽暖宮, 散寒燥濕
狼牙湯	下焦濕熱的陰痛, 證見陰中糜爛伴灼熱或痒痛感, 兼見帶下	清熱燥濕殺蟲止痒

【原文 22】

胃氣下泄^①하고 陰吹而正喧^②는 此殺氣之實也^③니 膏髮煎導之^④

【字句解】

- (1) 胃氣下泄: 李文彥은 “胃以納穀, 穀氣太實, 急切不得從大便轉出, 反從前陰竅中下泄, 此倒行逆施之病也.”라 했다. 余無言은 “體內之氣, 塞則聚, 通則散, 塞之極, 則能走竄隣近之組織, 而求其出路, 設無竅可出, 則必攻沖作痛. 似此 ‘下泄’之氣, 由腸胃間滲泄至陰道者.”라 했다.
- (2) 陰吹而正喧: “而”는 假說連詞인데, “如”의 뜻이 있다. 尤怡는 “陰吹, 陰中出聲, 如大便失氣之狀, 連續不絕, 故曰正喧.”라고 했다. 살펴보면 “正”은 程度副詞이고 “很”의 뜻이 있다. “正喧”은 소리가 매우 큰 것이다.
- (3) 此穀氣之實也: 余無言은 “穀氣之實, 大腸失潤, 氣結不行, 逼走前陰.”이라 했다.
- (4) 膏發煎導之: 李文彥은 “豬脂滑潤腸胃, 亂髮通瘀行滯, 毛髮屬肺所主, 其氣直走大腸. ‘導’字妙, 謂引導穀氣, 反其故道, 仍從大便中轉出, 則胃氣自不從前陰吹矣.”라 했다. 살펴보면 이것의 方義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걸로 認識되어 있는데, 실제로 『千金』에서 일찍이 驗案이 있었고 최근에는 賢余無가 『金匱要略新義』에서 治驗을 실었는데 믿을 만 하다. 曹家達은 일찍이 이 處方을 臆躁해서 納穀이 적은 것을 治療했다. 아울러 “仲師 ‘穀氣不實’ 四字, 早明示人以通治他症之路, 不專爲陰吹說也.”라 했는데 그 말은 仲景을 잘 공부한 사람이라 할만하다. 陰吹의 形成에 관한 說明에 있어서 腸胃燥結에만 限定한 것이 아닌데, 後世의 治法에서 취할만한 것이 역시 많다. 예를 들어 孫一奎가 補中益氣湯加 酒黃連을 사용한 것, 吳瑭이 橘半桂苓枳薑 등을 사용한 것과 같이 病因이 다르고 治法 역시 달라서 공부하기 좋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考察】

본 條文은 血虛津虧로 인한 胃腸燥結과 陰吹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婦人에게서 陰吹를 일으키는 原因은 다양한데, 本條는 이미 “胃氣下泄” “穀氣實”이라고 말하고, 이 陰吹는 胃腸의 燥結때문에 腑氣가 壅遏하고 濁氣가 腸道로 下行할 수 없어 前陰으로 外泄되므로 陰吹而正喧이라 說明하고 있

다. 그러나 胃腸燥結의 原因을 연구해보면 熱盛이 아니고 血虛津虧로 腸道가 濡養을 喪失했기 때문에 承氣湯을 써서 熱結을 攻下하지 않고, 養血潤燥하고 大便을 通導하는 豬膏髮煎으로 治療했다.

本證의 病因病機에 대해서 注家들은 각기 歧中하는 것이 있다. 實에 편중해 책임을 두는 이들이 있는데, 徐忠可·李彥尤在溼·曹穎甫 등이 있다. 虛에 편중해 책임을 두는 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吳謙은 “胃氣實而腎氣虛”라고 말했고, 朱光被·高學山 등은 “津液燥亡”으로 “穀氣壅甚”이 되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方藥分析을 結合해보면 朱氏와 高氏의 見解가 더 적절해 보인다.

【原文 23】

小兒疳蟲蝕齒方^①

雄黃 葶藶

上二味^② 末之^③ 以臘日^④ 豬脂^⑤ 以槐枝^⑥ 綿裹頭四五枚^⑦ 點菜塔^⑧ 之^⑨

【校勘】

- ① 小兒疳蟲蝕齒方: 吳謙은 “小兒疳蟲蝕齒一方, 殺蟲解毒, 或另有小兒門, 或列在雜方內, 今于婦人雜方之末, 亦錯簡也.”라고 했다.
- ② 右二味: 『本草綱目』卷十六의 “葶藶”條에서는 “等分”으로 되어있다.
- ③ 臘日: 『本草綱目』에는 “臘月”로 되어있다.

【考察】

본 條文은 小兒疳蟲蝕齒의 外治法을 論하고 있는데, 小兒는 養育의 不適當이나 乳食의 失調, 예를 들면 肥甘厚味와 소화되지 않는 食物을 즐겨 먹어서 濕熱을 釀生하기가 아주 쉽다. 濕熱이 口齒에 困結되는 것이 오래되어 毒이 쌓이고 썩게 되면 疳蟲이 생겨 齒牙를 썩게 한다. 이때 小兒疳蟲蝕齒方을 사용해 燥濕解毒祛風殺蟲한다.

本條에 대해 歷代注家들은 모두 세 가지의 見解가 있다. 하나는 本方을 실지 않는 것인데, 李彥·朱光被·高學山 등이 있다. 하나는 錯簡을 의심하는 것인데, 程云來·吳謙 등이 있다. 하나는 文장을 따라 뜻을 解釋하는데, 徐忠可·陳靈石·黃樹曾 등이

있다. 단 丹波元簡은 『金匱要略輯義』에서 “案: 仲景有口齒論一卷, (案: 見宋·藝文志) 今未之見, 豈彼處簡脫于此耶?”라고 했다. 그러므로 程·吳·徐·陳·黃 등 모두의 見解를 함께 든다.

方中の 雄黃은 燥濕解毒·祛風殺蟲에 能하고, 葶藶子는 下氣破滯에 能하고, 猪脂·槐枝는 모두 祛風·殺蟲·解毒의 效能이 있다. 그러므로 猪脂를 녹인 후에 槐枝를 면으로 머리를 싸서 患處에 다시 點藥으로 지저서 모든 藥이 조금씩 蛙齒中으로 들어가게 해서 燥濕解毒·祛風殺蟲의 效果를 발휘하게 한다.

IV. 結 論

『金匱要略·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에서는 婦人의 疾病의 經·帶와 熱入血室·梅核氣·臟躁·腹痛·轉胞·陰吹·陰瘡 등의 雜病에 관하여 주로 論述하였다. 歷代 注家들의 注를 참고해가며 辨證論治를 중심으로 本篇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婦人雜病은 經·帶가 위주이고, 그 主要 原因은 虛·冷·結氣 등의 3개 方面으로 歸納된다.
2. 婦人雜病은 胎產 이외의 疾患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 經帶가 가장 자주 나타나는 疾患이다. 그러나 胎產은 雜病을 일으킬 수 있고, 雜病도 매번 胎產에 영향을 미치므로 둘은 婦人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3. 熱入血室은 外感發熱로 야기되고 月經疾患과 有關한데 그것의 變證요점은 血結의 여부에 있고, 治療는 泄熱을 위주로 하며 小柴胡湯을 쓰거나 期門穴에 刺鍼한다.
4. 經帶病 方面의 疾患에는 經水不調, 經閉, 漏下와 帶下病 등이 있는데, 本篇에서는 그 症狀과 發病原因 그리고 原因에 따른 治法과 治方을 제시하였다.
5. 本篇에서 論한 腹痛은 月經 前後에 매번 發生하는 婦人科의 常見 病症인데, 風邪를 끼고 瘀血이 內阻하여 생긴 것은 紅鹽花酒로 活血止痛하여 治療하고, 血行不暢에 水濕을 挾하여 생긴 것은 當歸芍藥散으로 通調氣血·祛除收濕하는 것이 마땅하며, 中氣虛寒으로 인한 것은 小建中湯으로 溫中補虛하는 것이 마땅하다.
6. 梅核氣, 臟躁 등은 모두 情志刺戟과 有關하며 女子에게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前者는 痰氣鬱結한 것이므로 半夏厚朴湯으로 化痰理氣하여 治療하며 後者는 氣鬱化火하여 臟陰이 不足한 것이므로 甘麥大棗湯으로 滋養心脾·潤燥緩急하여 治療한다.
7. 轉胞에는 腎氣丸을 사용하고, 陰吹에는 膏發煎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後世의 有關한 敘述을 結合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金匱要略은 많은 雜病을 다루었지만 그 중 婦人科방면에 있어서는 病因 病機 症狀과 治方까지 모두 제시했고, 여기서 다른 내용이나 處方은 아직까지 임상에서 유의성있게 적용되고 있다.

參 考 文 獻

1. 郭霽春·王玉興, 金匱要略校註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267~285.
2. 張機,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影印出版, 1984.
3.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690~731.
4. 李克光 著,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596.
5. 金楨沆 編著, 金匱要略辨釋(下), 서울, 韓醫文化社, 2002, p.580.
6. 韓의부인과학 편집위원회 著, 韓의부인과학(上)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1, p3.